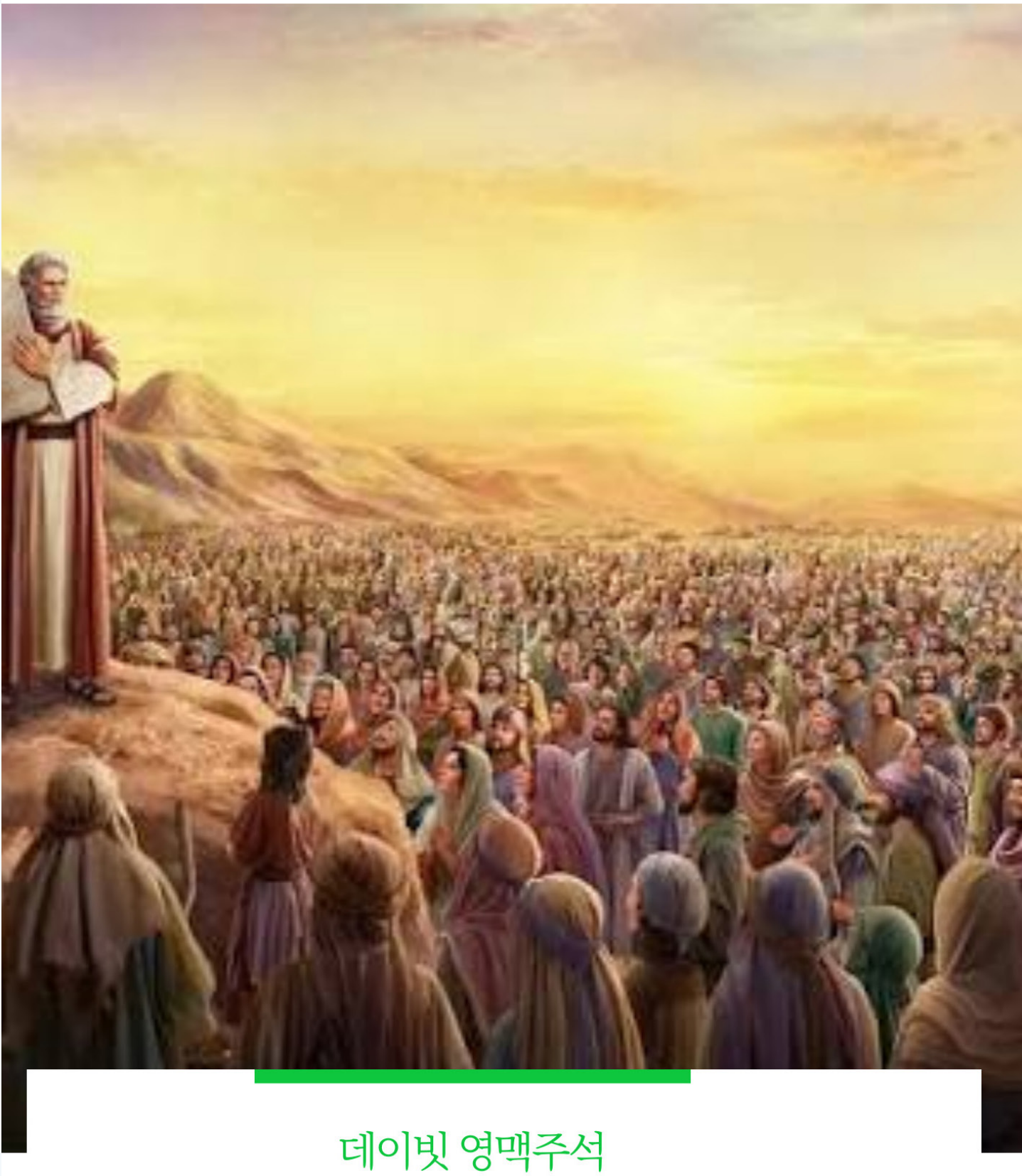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신명기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쭤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신명기 1장 ==========

[신 1:1]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숩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 남아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곳은 요단 저쪽이었습니다. '요단 저쪽'이라는 말은 가나안 반대 편을 말합니다. 소위 트랜스 요단(Trans Jordan)이라고 불리는 요단 동편입니다.

'숩'은 <얌숩>의 준말로 '갈대바다' 곧 '홍해'를 말합니다. '아라바 광야'는 원래 요단강 상류 헬몬산으로부터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와 아카바만까지의 모든 지역을 가리키지만 이곳에서는 남단 지역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란'은 시내반도 중앙의 동편에 위치한 넓은 사막지대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활이 주로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도벨'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하나 대략적으로 사해 남동쪽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여리고 동편의 '엘 리벤'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세롯'은 미리

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민 12장 참조). '디사합'은 아라바 동쪽 시내산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 1:2] 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열하룻 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산으로 '모세의 산' 또는 '시내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고대시대 때 성전이 있는 지역에 붙여진 도시이름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가데스와 구분짓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리를 40년이나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11일 걸리면 도달할 수 있고 곧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으나 40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참혹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11일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40년이나 방황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방황하였던 것은 저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방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 또한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일 밖에 걸리지 않을 짧은 거리를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과 같이 긴 세월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서 내려 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주 빠른 길로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 1:3] 제사십년 십일월 그 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마흔째 해 열한째 달'이란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의 11개월 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모세는 출애굽 40년이 되는 그 해에 120세가 되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하여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신 1:4]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고별설교를 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 동편을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만일 곧장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 갔다면 아마도 요단 동편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을 돕기 위해 협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서 요단 동편을 깨끗이 정리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모리인들을 쳐죽이고 그곳을 깨끗이 정리한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 21:3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민 21:32]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 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 내었더라 [민 21:33]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민 21: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민 21:35] 이에 그

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즉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 동쪽 지역의 모든 아모리인들을 우선적으로 점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야셀을 정탐케 한 뒤에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야셀'은 아모리 남왕국의 수도였던 '헤스본' 북쪽에 위차힌 길르앗 지역입니다. 아모리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야셀'지역이 아모리 남왕국의 마지막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남왕국을 완전히 점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돌으켜 바산 길로 올라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정복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요단강 동북쪽의 바산지역으로 진군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은 바산 왕의 수도가 에드레이와 아스다롯 두 지역이었다는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를 '아스다

롯과 에드레이에 사는'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드레이와 아스다롯에 거주하였던 바산 왕은 바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이 말은 성 안에서 수비형태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방식은 상대방을 얕잡아볼 때 행해지는 태도입니다. 저들이 거하고 있었던 '에드레이' 성읍은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야르묵 강의 남쪽 분기점 절벽 위에 세워졌기때문에 그 어떠한 공격도 능히 막을 수 있는 요새와도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민 21:35]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서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 1:5]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신 1:6]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지 오래니
[신 1:7]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신 1:8]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향해 돌격하라고 명했습니다. '아모리 산지'는 요단강 서편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에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 중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였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라바'는 요단강 상류 헬몬산으로부터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와 아카바만까지의 모든 지역을 가리킵니다. '해변'은 지중해 연안을 의미합니다. 이는 팔레스틴의 서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샤론(Sharon)평야가 이에 속합니다. '네겝(Negeb)'은 팔레스틴 남쪽의 넓은 광야지대를 가리키는 말로 '신(Zin)광야'를 의미합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틴의 북방 경계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 나는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왕상 5:7]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왕상 5:8]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왕상 5:9]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

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왕상 5:10]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을 주매."

'유브라데'는 가나안 땅의 동편 경계가 되는 큰 강입니다. 이 동산은 터키의 아르메니아 계곡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양 최대의 강입니다.

[신 1:9]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신 1:10]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신 1:11]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 1:12]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신 1:13]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신 1:14]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

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신 1:15]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모세 혼자서 모든 백성의 송사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인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백성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출 18: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출 18: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런데 이곳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외에 '조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에는 '패장'으로 번역되었는데 원어는 <쇼테르>이고 '유사'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관리인'이란 뜻의 'officer'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각종 사무정리나 기록등을 책임졌던 행정직 담당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 지파별로 세웠습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받는 자들을 택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자를 세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출 18: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마땅히 지도자는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때 비로소 백성은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 1:16] 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것이라
[신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 1:18]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 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송사에 대해 재판할 때 신본주의적이고 평등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따라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모습은 고대사회의 여러나라 법들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법이었습니다. 보통적으로 고대사회의 법은 빈부차이가 심하고 귀천의 차별이 있었으며 자국인과 타국인의 차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고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성경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도자의 조건을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 "[출 18:21]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드로가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다섯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온 백성 가운데서" -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세워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워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건강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재덕이 겸전한 자" - '재덕이 겸전한 자'는 마치 문장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일>이라는 한 단어를 그렇게 풀어 해석한 것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재물이 많은 부자를 뜻하기도 하며 용감한 성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지도자는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부자여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는 재물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도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버전은 '재덕이 겸전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단어 사이에 '곧(such as)' 라는 말로 마치 '재덕이 겸전한 자'를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진실무망한 것'과 '불의를 미워하는 것'을 '재덕이 겸전한 자'의 수식어구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재덕이 겸전한 자'는 오직 <하일>이라는 한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재덕이 겸전한 자'도 다른 조건처럼 함께 생각해야 할 조건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3.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 하나님을 두려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백성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4. "진실무망하며" - 이 말은 '진실'하고 '성실'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성실하지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할 때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지도자는 참된 목자처럼 백성을 위해 진실하고 성실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 - 마땅히 지도자는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도자가 스스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됨을 뜻합니다. 지도자가 불의를 행할 경우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 이

러한 다섯가지 조건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각 직분자에 대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직분은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혼용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은 감독 또한 장로직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순회장로입니다. 일반적인 장로는 시무장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순회장로인 목사들은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 순회를 하지만 시무장로는 정해진 교회에 평생토록 헌신하며 뼈를 묻을 때가지 백성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딤전 3:1]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딤전 3: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딤전 3: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딤전 3: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

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딤전 3: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딤전 3: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딤전 3: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찌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딛 1: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찌라 [딛 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딛 1: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딛 1: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 "책망할 것이 없으며"(딤전 3:2, 딛 1:7)- 이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

아야 하고 어떠한 흠 잡힐 일을 해서도 안되는 것을 뜻합니다.

2.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딤전 3:2, 딛 1:6)- 이 말은 결혼을 해야 하며 오직 한 여자와만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3. "절제하며"(딤전 3:2, 딛 1:8) - 이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4. "근신하며"(딤전 3:2, 딛 1:8) - 이것은 건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5. "아담하며"(딤전 3:2) - 이것은 예의바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6. "나그네를 대접하며"(딤전 3:2, 딛 1:8) - 이것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7. "가르치기를 잘하며"(딤전 3:2) -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함을 뜻합니

다.

8.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딤전 3:3, 딛 1:7) - 이것은 습관적인 술중독성이 있어서는 안됨을 뜻합니다.

9. "구타하지 아니하며"(딤전 3:3, 딛 1:7) - 이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우자 폭행이나 자녀 폭행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 "오직 관용하며"(딤전 3:3) - 이것은 성품이 인자하고 너그러워 사람들과 화평을 잘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11. "다투지 아니하며"(딤전 3:3) - 이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주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2.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딤전 3:3)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딛 1:7)- 이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13.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

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딤전 3:4),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찌라"(딛 1:6) - 마땅히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복종할 수 있도록 다스림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14.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 새로 입교한지 얼마 안된 사람은 쉽게 교만해짐으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어느정도 세월을 두고 지켜본 후에 지도자로 세워야 함을 뜻합니다.

15.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찌니" -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가 선하지 못할 때 이런 지도자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며 그것은 곧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딛 1:7) - 이것은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거나 제 멋대로 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17.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딛전 1:7) - 지도자는 화를 내어서는 안됩니다.

18. "선을 좋아하며"(딛 1:8) - 이것은 선한 행실을 잘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19. "의로우며"(딛 1:8) - 이것은 의로운 행실을 잘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의로와지는 덕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 "거룩하며"(딛 1:8) - 지도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마땅히 지도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딛 1:9) -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말씀따라 생활따로 살아가는 지도자는 참다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행한 것만 말하는 지도자, 자신이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집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 "[딤전 3: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딤전 3: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찌니 [딤전 3: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딤전 3: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찌니라 [딤전 3: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찌니 [딤전 3: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 "단정하고" -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 한 입으로 두 말

을 하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함으로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 이것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 이것은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5.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 매사에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6.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땅히 지도자는 큰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 1:19]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신 1:20]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신 1:2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신 1:22]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보케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지 1년여만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모두 교육시킨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율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곧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21절)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보다 먼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길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 자녀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는 모든 장성한 자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신 1: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연찮게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부모의 죄로 인해 당신에게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하나님은 성경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주십니다.

[신 1:23]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매
[신 1:24]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신 1:25]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좋게'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타브>인데 이는 '올바르게 취급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을 '좋게' 여기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이 옳기 때문에 좋게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좋게' 여김을 받은 것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계획과 결정과 판단을 '좋게' 여기실 때가 많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문제가 있고 험난한 고난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의 결정을 '좋게' 여기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 조차 인내하십니다. 그것 조차 참으십니다. 그것 조차 '좋게' 여기십니다. 결코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대

부분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대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맺음을 원치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들을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당신을 향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보편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들려진 음성대로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신 1:26]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신 1: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신 1:28]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계획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것은 패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27절).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했으며 자신들을 저주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패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

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은 모두 우리를 위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신 뜻이 아닙니다. 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한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훨씬 저들의 삶이 좋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고 광야에서 죽임까

지 당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광야에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잔뜩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 1: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 1:30]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 1: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신 1: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적들과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적군도 이스라엘 백성을 범치 못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32절)고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바닷길을 건너게 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우리들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실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식을 껴안고서 그 어떠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안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 1:33]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준비하십니다. 밤에는 불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불효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마땅히 신자라면 왜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효자가 부모의 은혜를 알듯이 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법입니다.

[신 1:34]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신 1: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장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취할 것을 명하였지만 도리어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며 쳐들어가길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끔찍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저들 중에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형벌을 당한 원인은 저들의 불순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벌을 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벌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잘 안다면 그렇게 불순종한 삶을 살겠습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뜻에는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불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알고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때부터 순종과 불순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당신이 "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쯤 되면 '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

채 무작정 자신은 순종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예배를 참여하고 교회모임에 참여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이처럼 막연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담임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주보에 적혀 있는 광고문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 시간 혹 여러 날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때부터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순종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매우 쉽고 이해가 되지만 하나

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뭇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넓은 문입니다. 순종이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은 넓은 문입니다. 순종이 불순종보다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 1: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 1:37]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 1:38]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신 1: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아께 순종하였은즉"(36절) 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형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불순종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선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쉽게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치 마십시오. 적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장정 60만명 중의 2명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렇듯 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에 비해 적은 수입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녀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선악을 분별치 못했다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 1:40]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신 1:41]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

라가려 할 때에
[신 1: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신 1:43]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신 1:44]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40절) 명하셨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사해 남단의 성읍인 다말(Tarmar)에서 아카바(Aqaba)만의 어귀인 에시온 게벨이나 엘랏으로 내려가는 길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시내산 쪽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적들과 싸우겠다고 야단들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어찌된 것일까요?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상태를 전하였을 때 울며불며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더니 이제 와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싸우겠다는 모습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우스운 모습을 보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랬다저랬다 하는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 중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지 아니면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거리낌 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지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것은

경우를 분별하지 않고 아무때나 우쭐대거나 교만하게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우쭐대는 태도로 가나안 족속을 향해 돌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우쭐댑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우쭐댐과 교만함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붙어다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될 것인데 자꾸만 우쭐댑니다. 모세 역시 우쭐댐과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런 우쭐댐과 교만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 20: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민 20: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나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짓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낫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신 1:45]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신 1:46]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 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른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통곡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매우 서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통곡소리를 듣지 않으실 때 맘이 아픕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마음이 아프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식이 아파하는데 그 아픔이 자식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애써 태연한척 하며 모른채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아

파 하심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악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문을 열어 놓으신다면 우리는 더욱 큰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 벽이 허물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 59:1]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신명기 2장 ==========

[신 2:1]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행하더니
[신 2:2]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신 2:3]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해서 광야로 되돌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은 38년여의 긴 세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일 산'은 아라바 광야 저지대에서 아카바 만 근처에까지 뻗어 있는 에돔의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산ㄷ악 지대를 두루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북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38년만의 진격 명령인 셈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긴 방황의 세월이 있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뜻한 일을 행하려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긴 방황의 세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긴 방황의 세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러한 방황의 세월은 끝나고 진격하라는 명령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전쟁에 나갈 때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을 모두 아시고서 준비의 시간으로 광야로 내 몰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신 2:4]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신 2:5]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신 2:6]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상하여 진격할 때에 에서족속이 사는 지역을 지나게 될 때에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야곱의 장남인 에서의 족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 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신 2:7]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였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심이며 스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며 살

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 위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도 복이 없나'는 생각이 들거나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걸까?'란 생각이 들 때는 마귀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신 2:8] 우리가 세일 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신 2:9]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하나님은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 한 이유와 같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

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모암족속과 암몬족속 모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아라바'는 원래 갈릴리호수로부터 요단골짜기를 따라 사해 너머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광활한 동쪽 지역을 말하지만 이곳에서는 사해 남쪽으로부터 에시온게벨까지 이르는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Dead Sea)를 '아라바해'라고도 불리운 이유입니다.

"[수 3: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엘랏과 에시온게벨'은 홍해의 아카바만 최북단에 위치한 2개의 항구 도시입니다.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라는 말은 에돔 족속에 의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회하여 동편 모압 땅을 향해 북상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 2:10]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신 2:11]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신 2:12]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에밈 사람'은 가나안 초기 원주민 중 하나로 일명 '에밈 족속'이라 불리웠습니다. "...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11절). 이들은 아낙족속처럼 키가 매우 크고 힘이 센 족속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이 '르바임'이라 불렀는데 '르바임'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영어 번역본(KJV, RSV)에서는 '거인족(Giants)'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낙족속도 르바임에 속해 있습니다.

'호리사람'은 동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에돔 산악지대의 세일 산 주변의 석회암 동굴에서 살았던 원주민입니다.

[신 2:13]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



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신 2:14]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 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신 2:15]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 중에서 멸하신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신 2:16]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정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세렛 시내'는 사해 남동쪽에 동서로 뻗어 있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나누는 시내입니다. 이 세렛(Zered)시내는 비가 올 때에 대략 5-6km 정도의 긴 시내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만 38년을 지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저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거주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방황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며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

냈듯이 어쩌면 당신도 하나님께 분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는지도 모릅니다.

[신 2:17]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신 2:18]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신 2:19]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하나님은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에돔족속과 모압족속과 싸우지 말라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며 모압족속과 암몬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신 2:20] (이곳도 르비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밈이라 일컬었었으며
[신 2:21]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신 2:22]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 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신 2:23]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암몬족속이 사는 곳도 전에 르바임이 거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바임'은 아낙족속처럼 키가 매우 크고 힘이 센 족속입니다. 영어 번역본(KJV, RSV)에서는 '거인족(Giants)'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삼숨밈'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삼숨밈'이라는 단어는 '왁자지껄하다', '악을 행하다'라는 뜻의 <자맘>에서 파생한 말로 항상 악을 도모하거나 시끄러운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을 지키시기 위해 르바임족속을 호리사람 멸하심과 같이 멸하셨습니다.

'갑돌사람'이 '아위사람'을 멸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갑돌사람'은 블레셋족속을 의미합니다. 이 블레셋족속은 그데테에서 팔레스틴의 남서부 해안지방으로 이주해 온 해양민족입니다. 이들이 거주한 지역 중 하나인 '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5개 성읍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위사람'은 성경에서 단 2회 언급되고 있는데

팔레스틴 남서부 해안지방의 촌락에 흩어져 살았던 가나안 초기 원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족속에게 멸망하였으며 살아남은 사람은 블레셋 족속과 함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신 2:24]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신 2:25]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땅과 아모리 사람들을 모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한번도 치루지 아니한 젊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전에 하나님의 명

령에 불순종했던 성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선악을 알지 못하는 젊은 자녀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치뤄야 할 성인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한번도 전쟁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매우 두렵고 떨리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이 근심하리라"(25절).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있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들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제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천하 만민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며 나의 명성을 듣고 떨게 만드셨으니 그것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세렛시내와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급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아라비아 산지에서 발원하여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모압강에 의해 형성된 골짜기로써 모압과 아모리족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입니다. '헤스본'은 요단강 하류 24km 지점에 있는 얍복강과 아로논강 사이의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헤스본은 훗날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신 2:26]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신 2:27]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신 2:28]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신 2:29]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신 2:3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퍅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모세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고 평화를 원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시혼왕이 모세의 평화의 뜻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모리사람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헤스본 왕 시혼이 모세의 뜻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혼왕의 마음을 완고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30절)
하나님은 시혼왕의 성품을 완강케 하셨는데 '완강케'라는 단어는 <아마츠>인데 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 고집불통스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왕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

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시혼왕의 마음을 강퍅케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험난한 가나안 입성이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혼왕의 마음을 강퍅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먼저 아모리족속과의 싸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편의 아모리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 동편지역의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시려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모리사람과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을 대비케 하신 의도도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미운 사람이 더욱 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사그러지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많아지거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데못 광야'는 아르논강의 북쪽 상류에 위치한 평지입니다. 훗날 므라리 계열 레위인들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신 2:31]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혼과 그 땅을 네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신 2:32] 시혼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신 2:3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신 2:34] 그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신 2:35]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신 2:36]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신 2:37]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얍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야하스'에서 아모리 사람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야하스'는 요단 동편의 아르논 강 북쪽에 위치한 아모리왕 시혼이 거주했던 성읍으로써 훗날 레위지파 므라리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작전은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어미와 그 새끼를 함께 몰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대로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34절)에서 '진멸하다'는 <하람>으로써 '철저히 죽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조금의 악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사람 모두 진멸시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악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의 가족도 진멸될 것이며 나의 후손도 진멸될 것입니다. 그 모든 진멸의 원인은 우리의 '죄악'에서 비롯됩니다.

'아로엘'은 사해 동편의 성읍으로 대략 2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아라이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점령된 후에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은 모압의 수도인 '아르'를 가리킵니다.

'길르앗'은 야르논강과 야르묵강 사이에 있는 고원지대로 요단 동쪽 땅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얍복강 북쪽에 있는 길르앗 산을 가리킵니다.

'얍복강'은 길르앗 동편 고원지대에서 발원하여 아모리땅 북편쪽을 흐르는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길이가 대략 100km 정도이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강입니다.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길르앗 산지에 흩어져 있는 암몬 족속의 여러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3장 ==========

[신 3:1]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신 3: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신 3: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시혼왕과 그의 백성을 점령한 뒤에 또 다시 북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 입성이 먼저여야 하는데 오히려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은 유브라데강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요단강 동편쪽의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바산'은 요단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갈릴리 바다 동편의 비옥하고 광활한 고원지대입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며 야르묵강을 경계로 땅이 이분됩니다. 얍복강에서부터 야르묵강까지의 길르앗 산지가 북부지방이며 야르묵강에서 레바논의 헬몬산까지가 최북단지역입니다. 당시 바산 옥 왕은 이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에드레이'는 야르묵강 상부지역으로써 바산 옥 왕이 거하고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아스다롯'과 함께 바산 왕국의 2대 수도였습니다. 바산 왕국은 대략 60여 개가 넘는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에돔족속, 모압족속, 암몬족속과 달리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정착하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신 3:4] 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신 3:5]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신 3:6]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신 3:7]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신 3:8] 그 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신 3:9]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룐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신 3:10]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신 3:11]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홉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시혼왕과 바산 옥왕과의 전쟁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남녀 노소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아까지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죄악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죄악의 뿌리가 다시금 진을 치고 우리의 영혼을 죄로 더럽힐 것입니다.

'야르곱'은 바산 북동쪽 지역으로 돌이 많은 곳입니다. 야르곱이라는 말은 바산을 가리키는 이명동의어입니다.

'헬몬산'은 팔레스틴 북방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 남단의 최고봉으로 해발 2,85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의 정상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어서 이 물이 흘러 갈릴리호수로 들어갑니다. 시돈 사람들은 이 산을 '시리온'(Sirion)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이 산을 '스닐'(Senir)이라 불렀습니다.

'살르가'는 바산의 동쪽 경계에 위치한 성읍인데

잠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였다가 후에 갓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에드레이'는 당시 바산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바산 왕국의 수도는 에드레이와 아스다롯입니다.

[신 3:12] 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신 3:13]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신 3: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신 3:15]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신 3:16]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복 강까지며
[신 3:17]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과 기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출애굽 한 이후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땅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어진 것은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민수기 3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민 3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민 32: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민 32:3]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민 32:4]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민 32:5]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단강 동편 땅에 거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동편 땅이 저들 보기에 심히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르우벤 자

손과 갓 자손에게 심히 많은 가축 떼가 있었다고 언급하지만(민 32:1) 가축 떼가 없는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가축 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저들의 '가축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외에는 다른 아무 지파도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겠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저들은 '가축떼'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시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초점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욕을 좇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에 좇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김없이 주는 사랑이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남김없이 채우는 성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합니다.

더군다나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장남이었습니다. 마땅히 장남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 지파는 장남지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과 그 지류인 야르묵강, 압복강, 아르논강 사이에 위치한 땅으로 목축을 위해 매우 적절한 땅이었스빈다. 이곳은 목축업과 농산물 지역으로도 고대부터 익히 알려져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단강 동편 땅은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강 동편 땅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이동하겠다고 선택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모세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에 이르는 지역을 기업으로 물려 주었는데 이는 저들이 바산 왕국을 점령할 때 세운 혁혁한 공을 인정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 받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 하는 자와 일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 합니다. 마땅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의 "바산을.....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는 바산을 거인족의 땅이라고 일컬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아들 야일'은 므낫세 후손 야일을 말합니다. 야일은 혈통적으로 볼 때 므낫세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의 5대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손녀인 그의 할머니가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의 첩이 되어 야일의 아버지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어머니를 따라 므낫세 지파 중에 생활하였기 때문에 야일이 므낫세 지파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술 족속'은 헤르몬 산 남쪽에 있었던 부족국가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상류의 나무터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과 결혼하여 압살롬을 낳았던 마아가가 바로 그술 족속의 왕

달매의 딸이었습니다(삼하 3:3).
'마아가 족속'은 그술 족속의 지경과 헬몬 산 사이의 지역에 거주했던 족속으로 일명 마아갓(수 13:13) 또는 아람마아가(대상 19:6)로 불리웠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던 암몬을 지원하기 위해 천명의 용병을 보냈다가 크게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삼하 10:6-19).
'하봇야일'은 야일의 성읍들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이 취한 성읍의 수는 23개로 알려져 있습니다(대상 2:22-23).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창 50:23). 마길에게 길르앗이 주어졌다는 말은 므낫세지파 중 마길 계열의 자손들에게 길르앗이 기업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긴네렛'은 하프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의 별칭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게네사렛(눅 5:1)으로도 불리웠는데 남북이 약 22Km, 동서가 약 14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아라바 바다 곧 염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동해'라고도 불리웠습니다(겔 47:18). 염해는 일반 해수보다 6배나 높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염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사해는 지중해 해면보다 대략 400㎞나 더 낮은 호수로써 지구

상에서 가장 해수면이 낮은 호수입니다.
'비스가 산록'은 비스가산의 구릉이 시작되는 산 기슭을 뜻합니다. 비스가산은 여리고 반대편의 아바림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정상은 '느보'라고 불리웠습니다. 모세가 죽은 산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신 3:18] 그 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신 3:19]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신 3:20]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모세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고서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바라보지 못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민 32: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

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민 32:7]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며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지난 40년 간을 고생하며 지내다가 이제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는데 12지파 중 2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방해거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힘을 합쳐도 힘들 것인데 2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로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드렸을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회중 전체의 주장이 다를 때는 나의 주장을 접고 회중의 주장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나의 주장에 회중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

고 모든 지파가 다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해야만 했기에 르우벤과 갓 지파의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름지기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주장을 접고 회중 전체의 주장을 따라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는 자신의 주장을 회중의 주장보다 더 우선시 여기거나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갈라지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회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생각이나 사명이나 주장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을 통해 가정과 사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모세가 강력하게 화를 내자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서 자신들의 자녀들만 성읍에 안전하게 남아 있게 하고 자신들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 32:16]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 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민 32:17]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민 32:18]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민 32:19]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는 저들의 뜻을 받아 드렸고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도록 했습니다. ".....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18절).

요단 동편 땅 분배		
성읍	성읍 설명	소유 지파
디본	아르논 강 조금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18에는 르우벳 자손의 성읍으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갓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입니다.	갓
아다롯	디본에서 동북쪽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갓
아로엘	아르논 강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갓
아다롯소반	아다롯 지역 근처로 추측되며 아다롯과 구분하기 위해 '소반(동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갓
야셀	암만(Amman) 서쪽에 위치합니다.	갓
벧니므라	요단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축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땅입니다.	갓

요단 동편 땅 분배		
성읍	성읍 설명	소유 지파
벧하란	여호수아 13:27에서는 '벧하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갓
헤스본	얍복과 아르논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성읍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르우벤
엘리알레	고산지대로서 헤스본 북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르우벤
기랴다임	헤스본에서 남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추정됩니다.	르우벤
느보	모세가 죽음을 당한 느보산이 있는 느보산상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르우벤
바알므온	아마도 이곳은 가나안인의 신인 바알신 숭배 중심지 중 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르우벤
십마	이곳은 헤스본과 가까운 곳이며 포도 주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르우벤
길르앗	얍복강 북쪽의 북부지역입니다. 이곳은 바산지역의 중심지입니다.	므낫세
하복야일	이는 야일의 성읍들이라는 뜻이빈다. 야일이 취한 성읍의 수는 23개로 알려져 있습니다(대상 2:22-23).	므낫세


35 E
36
시돈
두로
헤르몬 산
아욘
리타니 강
두로
단
벳아낫
게데스
훌라 호수
이론
하솔
아셀
므롬
납달리
동쪽 므
악고
가버나움
가불
아벡
미살
한나돈
갈릴리 바다
나할랄
림몬
락갓
골란
갈멜 산
악삽
기손 강
스불론
함맛
헬갓
그술롯
다브랏
얍느엘
아르묵 강
엔 핫다
욕느암
사리드
다볼
다볼 산
로드발
돌
므깃도
수넴
엔돌
야르뭇
잇사갈
이스르엘
다아낙
길르앗
벧산
엔 간님
이블르암
도단
야베스 길르앗
소고
서쪽 므낫세
디르사
게라사
얍복 강
에발 산
세겜
사본
그리심 산
브누엘
숙곳
비라돈
아르논 강
아벡
야노아
답부아
갓
가드 림몬
욥바
실로
에브라임
야셀
여훗
오브라
단
롯
벧엘
암만
상부 벧 호론
나아란
깃다임
미스바
벧 니므라
사알빔
길갈
기브온
얍느엘
게셀
그비라
라마
여리고
아벨 싯딤
헤스본
아얄론
기랏 여아림
아둘람
바알랏
김브돈
그살론
예루살렘
벧 호글라
느보 산
아스돗
에그론
소라
에스다올
메드바
딤나
베냐민
벧 세메스
베들레헴
가드
그데못
드고아
아스글론
벧 술
르우벤
마레사
라기스
헤브론
염해
디본
에글론
유다
엔게디
가사
웃다
아르논 강
에스드모아
그랄
시글락
얏딜
브둘
아산
아랏
갑스엘
사루헨
길하레셋
브엘세바
호르마
하살 수알
바알라
모압
시므온
엘돌랏
에셈
세렛 강
다말
에돔
아라바


12-28
투 임무
0 10 20 30 40 Miles
0 10 20 30 40 Kilometers
바산
가르나임
갈릴리 바다
야르묵 강
갈멜 산
므깃도
대해(지중해)
벧산
길르앗 라
잍
갓
강 히여
세겜
텔 데이르 알라
압복 강
욥바
나
모압 평원
야셀
아벨 싯딤
여리고
헤스본
예루살렘
벧 여시못
벳 브올
느보 산(비스가)
메드바
모세를 장사 지냄
알몬-디블
헤브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함
미쇼르
디본
그데못
염해
아르논 강
그랄
아르
아랏
브엘세바
길하레셋
호르마
모압
네게브
세렛 강
소알
이예 아바
아말렉
살모나
도벨
다말
신 광야
보스라
세일 산 (에돔 산지)
호르 산(?)
부돈
가데스 바네아
아라바
에돔
홍해 길
데만
왕의 길
모압 길
30 N
딤나
에시온 게벨
아카바 만

[신 3:21] 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신 3:22]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 3:23]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신 3:24]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신 3:25]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신 3:26]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신 3: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모세의 마음에는 온통 가나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 사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뤄졌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문제를 해결해왔던 모세가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 20: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20: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 고난가운데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출 17: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출 17:6]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문제해결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람은 문제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질 뿐이며 우리를 더 큰 문제로 빠뜨릴 것입니다. 언뜻 볼 때 세상과 사람이 문제 해결책을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며 신기루와 같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전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

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목전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높은 바위산에 오리게 하셨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이 거대한 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돌로 된 산이라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수 많은 회중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민 20: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민 20: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민 20: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통해 물을 냈습니다. 백성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10절)고 말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물을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지팡이가 물을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나무에 불과한 나무를 능력있는 지팡이로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잠시 잊은 것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기만 하면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심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분개하셨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문제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지팡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에 능력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받을 영광을 가로채실 것입니다.

혹 당신에게 임할 복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인생문제가 뚫리지 않습니까?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당신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하나님께 돌려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 때문에"라고 오히려 자신의 죄값을 뒤로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 3: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 3:29] 그때에 우리가 벨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끔찍히 챙기시는 모습을 대할 때에 강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룬 업적을 여호수아가 그 공로를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도록 일했지만 여호수아는 열매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심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줬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안수를 통해 모두 전이해줬습니다.

"[신 34: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

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를 통해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형제로 인해 손해를 봅니다. 심한 경우엔 형제로 인해 자리를 잃게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 얻은 귀한 것들을 형제로 인해 잃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형제를 축복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더 얹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민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신명기 4장 ==========

[신 4: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 4: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1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규례'는 <후카>인데 이는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법규를 말합니다. '법도'는 <미쉬파트>로써 이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모든 공적이고도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규례'와 '법도'는 성경에서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로써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반드시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인데 이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려 합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싫은 계명은 안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 이단적인 목회자는 성경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은 더 보충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성경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으면 매우 잘못된 복음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 4:3]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신 4: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

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싯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방의 술사인 발람의 계략에 의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행했던 최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의 신 바알브올을 섬기도록 유혹했으며 수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이방 신 바알브올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함으로써 24,000명이 죽음을 당하였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민수기 25장 참조).

'바알브올'(Baal-peor)은 '브올지방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당시 모압 족속이 섬겼던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길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4절)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붙다"는 말은 '붙다'를 뜻하는 <다바크>가 사용되어 '하나님과 굳게 결합하라' 혹은 '하나님의 뒤를 바싹 뒤따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동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 4: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신 4:6]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 4: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 4: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모세는 기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 120세의 죽음까지 줄곧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유익함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억지로 하지 않으면 좀처럼 기도하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까닭은 모세의 실제 삶 가운데 사실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가깝게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 33: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친구처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마치 여느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께서 부족한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생각조차 하

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를 형식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의식적으로 집행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뭔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리는 도구로 기도를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상상을 통해 주님을 떠올ㄹ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실상은 항상 우리 옆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훨씬 가까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못 느끼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상상하면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멀리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실상은 훨씬 가끼이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느낌을 갖는 것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런 당신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식으로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기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는 삶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보면 언젠가는 영이 열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면 그 때는 모세처럼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 4: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 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 4:10]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마음'에 해당되는 원어는 <네페쉬>입니다. 이는 영(spirit)이란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네 영혼을 힘써 지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네페쉬>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의미로 다소 혼적인 영역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마음'을 뜻하는 <레브>라는 단어와는 달리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네페쉬>를 '영'을 뜻하는 <르아흐>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네 영혼을 지키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육적으로 감지하거나 육적으로 취급되기 보다 영적으로 이해되고 영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덜떨어지고 못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

다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라야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신 4: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신 4:12]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 4:13]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불ㄹ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힌 모습을 보았으며 불길 가운

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장로들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신 4:1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혼내거나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신 4:15] 여호와께서 호렙 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신 4:16]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신 4:17]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

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신 4:18]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신 4:19]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간략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단지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신 4: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신 4:12]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단순히 나무로 만드는 형상이나 흙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신 4:20]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신 4:21]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신 4:22]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신명기 3장에서 언

급을 했습니다.

"[신 3: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만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모세의 마음에는 온통 가나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 사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뤄졌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문제를 해결해왔던 모세가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 20: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20: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 고난가운데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출 17: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출 17:6]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문제해결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람은 문제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질 뿐이며 우리를 더 큰 문제로 빠뜨릴 것입니다. 언뜻 볼 때 세상과 사람이 문제 해결책을 주는 것처럼 보

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며 신기루와 같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전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목전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높은 바위산에 오리게 하셨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이 거대한 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돌로 된 산이라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수 많은 회중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민 20: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민 20: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민 20: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통해 물을 냈습니다. 백성

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10절)고 말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물을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지팡이가 물을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나무에 불과한 나무를 능력있는 지팡이로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잠시 잊은 것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기만 하면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심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분개하셨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문제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지팡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에 능력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받을 영광을 가로채실 것입니다.

혹 당신에게 임할 복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인생문제가 뚫리지 않습니까?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당신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하나님께 돌려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 4:23]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신 4:24]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 4:25]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신 4:26]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신 4:27]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신 4:28]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23절)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 중 두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계명은 첫번째 계명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계명에 나오는 '다른 신들'은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어떠한 종교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계명에 나오는 '우상'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 있으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다른 우상이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자손 천 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 계명을 어길 때는 자손 삼 사대까지 죄를 갚으십니다. 사람들은 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재물에 문제가 있으며 자녀가 똑바로 성장하지 못하며 질병이 있는지 알 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1)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고 2) 의롭게 살지

못하고 3) 계명을 지키지 않고 4)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 4:29]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신 4:30]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신 4:31]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백성이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지만 우상의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은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 43: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신 4:32]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신 4:33]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신 4:34]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신 4:35]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족속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거대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던 과거사를 말하였습니다.

우리모두의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쁨으로 오늘을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 4:36]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신 4:37]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신 4:38]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 4:39]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신 4:40]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려고 저들

에게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야사르>로 '훈계하다(discipline)', '징벌하다(chasten)', '가르치다(instruc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영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 4:41]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신 4:42]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신 4:43]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

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신 4:4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이후에 그 땅에 도피성 3개를 마련하셨습니다. 도피성(the Refuge City)는 일종의 성역제도입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했을 때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신 4:45]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신 4:46] 요단 동편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신 4:47]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신 4:48]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신 4:49]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는 다시금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이래로 또 다시 율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번에 율법을 선포한 곳은 아모리 산지였습니다. 아모리 남방과 북방을 모두 진멸한 이후에 요단 동편에서 율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율법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율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율법이 선포되어져야 하며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벧브올 맞은편 골짜기'(46절)는 모세가 죽어 묻힌 곳으로 모압 평지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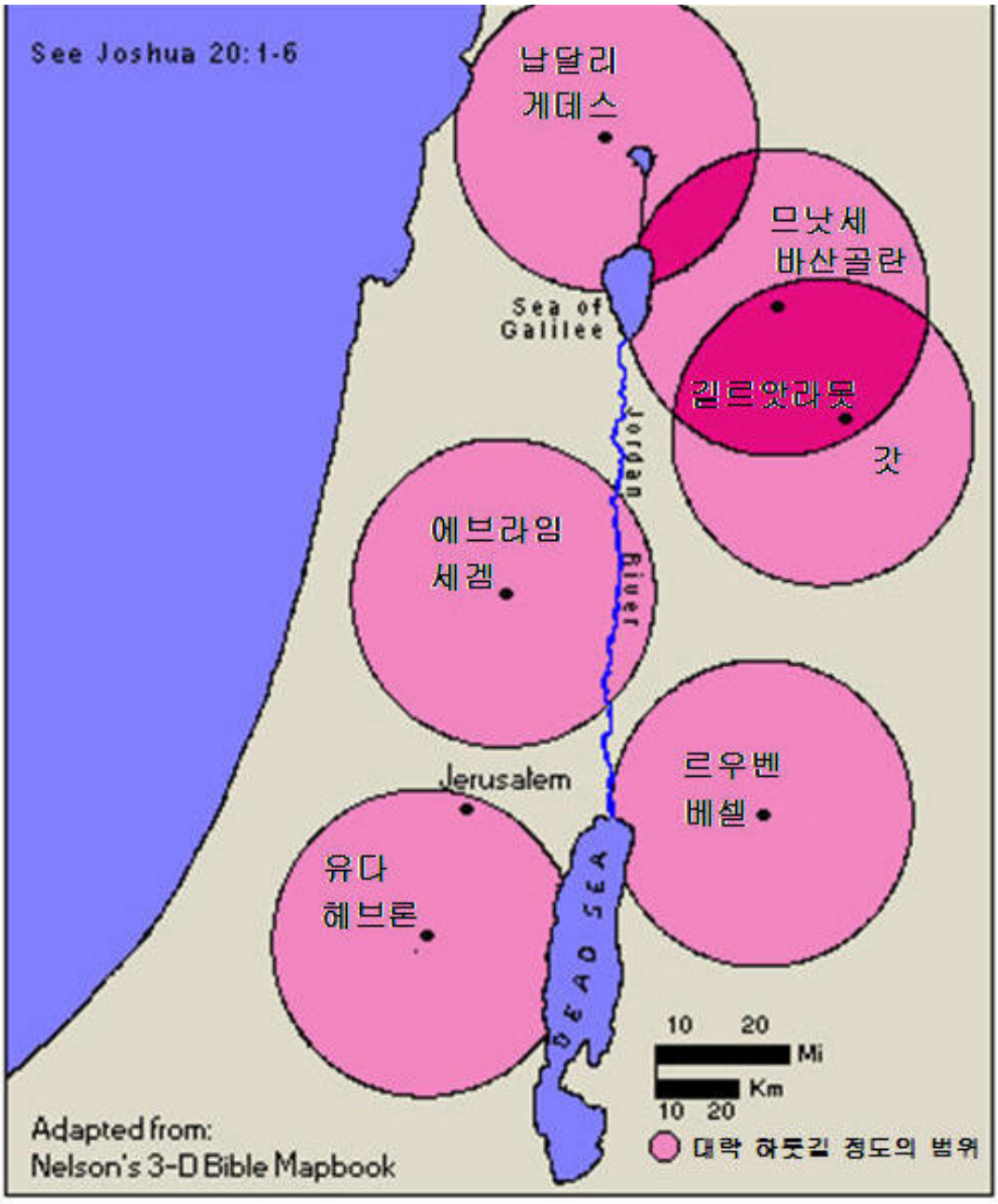
'시온 산 곧 헤르몬산'(48절)은 해발 2,850미터의 높은 산으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산중턱부터는 만년설이 있으며 그곳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영입됩니다.

'온 아라바'(49절)는 헬몬산에서부터 아카바만의 홍해(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르는 요단 동편 땅 전역을 가리킵니다.

도피성

도피성이란?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같이 도피성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을 말하는데 이들이 회중 앞에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 35: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민 35: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민 35:13] 너희가 줄 성읍 중

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민 35:14] 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부족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원한을 갚기 위해 무차별 살육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도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경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우연히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보지 못한채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민 35: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민 35: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지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은 사람이나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여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보아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원한으로 인해 손으로 쳐서 죽인 사람의 경우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 35: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민

35: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민 35: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민 35: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도피성의 규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찾아 왔을 때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그 사람의 범한 일에 대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이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 판결할 때 반드시 두 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다음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할만한 사람으로 판단이 될 때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들여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도피성에 거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면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을 스스로

벗어난 경우엔 더 이상 보호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법적 보호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도피성과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모두 3개씩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손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만일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빨리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 "[신 19: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신 19: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

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잘 닦아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신 19: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 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는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도 산 길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도 산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타국인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도피성을 벗어나면 생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

을 때 자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 35: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수 20: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신명기 5장 ==========

[신 5: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 5: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신 5: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전하면서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3절)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옛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오늘날 살아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옛 걸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갈 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

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 3: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몽학선생)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도 곧장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청소년 시기를 거치지 않고 곧장 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생이며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장소와도 같습니다.

[신 5:4]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신 5:5]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신 5:6]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신 5:7]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신 5: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신 5: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 5: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후 대략 3개월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 대면을 위해 백성들에게 정결과 거룩함으로 예비케 하셨습니다.

"[출 1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출 19:11]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채 산 위에 올라와 하

나님을 대면할 때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백성들로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 19: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에 오르지 못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백성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비록 신명기 4장에는 마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적혀져 있지만 실은 모세를 통해 전해 들은 것입니다.

"[신 4:12]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

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비밀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도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나 사역자를 통해서도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신 5:11]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된 십계명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은 십계명 중 3번째 것입니다. '망령(misuse)'이라는 말은 '오용', '악용', 그리고 '남용'이라는 뜻입니다. '오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악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며 잘못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참지 못할 치욕스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이름도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오용해서는 안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2)

하나님께 거짓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누군들 거짓으로 맹세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

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마 5:34-36)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도 상처를 입고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적을 땐 많은 손해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땅이라고 그 이유

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교회나 목사에게 이익이 돌아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치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막 7:11-12).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르반'이라고 규정된 예물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한 행위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 하기 위해서 부모를 위해 사용될 재물을 '고르반'이라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모임을 빙자해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는 욕설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욕설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용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선 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자녀들 이름 부르듯이 쉽게 불러선 안됩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귀한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는 않습니다(마 7:6).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 6:7).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하루에 수천 번 부른다고 나무랄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버지의 장난 삼아 이름을 부를 땐 화내지 않을 아버지도 없을 것입니다.

[신 5:12]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 5: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신 5:14]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신 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 5:16]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 5:17]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 5:18]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신 5:19]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 날' 곧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단어만 틀릴 뿐 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예배를 빼먹고 야유회에 참여한 사람 역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네번째 계명을 어긴 것 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빠져 지내는 것도 죄입니다. TV나 대중매체에 심취해 있는 것도 죄입니다. 물론 평일도 이런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마땅히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주일에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오락과 매매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 하십시오. 이 계명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가게 문을 열지 마십시오.

"볼찌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 육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칠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출 16:29).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안식일 전날엔 정확하게 이틀분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하고 하루 양식만 준비한 사람은 안식일 날에 꼬박 굶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찌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

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출 31:14).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과 가축 심지어 식물과 흙까지도 쉼을 누려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사 58:13).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저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저의 집안을 높이시고 저의 가문을 높일 것입니다. 저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했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기르실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손이 많았습니다. 저희 자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습니다. 결코 굶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애굽의 총리대신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일을 담당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야곱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야곱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 축복 중 하나가 성령의 불이 될 것입니다.

[신 5: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신 5:23]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신 5:24]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

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신 5:25]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신 5:26]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신 5:27]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신 5:28]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신 5: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거하신 것은 보

다 짙은 구름들이 함께 모여있어 어둡게 보여짐을 뜻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완공하고 낙헌식을 할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어찌나 구름이 가득히 임했던지 제사장들이 의식을 집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구름을 가리켜 캄캄한 구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왕상 8:12] 그 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저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건의사항을 기뻐받으시며 "그 말이 다 옳도다"(28절)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건의사항을 좋게 받으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저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은 아닐지라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처럼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 5:30]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신 5:31]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신 5:32]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 5: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

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려 주셨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율법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정도가 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율법을 혼용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만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맘대로 고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안 식 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이 6일 후에 7일째에 안식하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6년 후에 7년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안식하였습니다. 이 해에는 사람도 안식했으며 토지도 안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냥 놔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함이며 이로 인해 더욱 소득이 증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

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레 25:1-5)
"

하나님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제 7년 째 땅을 쉬게 할지라도 6년째에 3년 동안 취할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6일째에 만나를 갑절로 내려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7년째 땅을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 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육 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팔 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 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레25:18-22)

안식년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림으로 땅 주인과 일반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기간에는 토지 주인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종이나 나그네나 들짐승까지 안식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레25:6-7)

또한 안식년에는 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은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7년 안식년에는 모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

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 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 함을 받지 아니하리라."(신 15:1-6)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39가지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느질 2) 밭가는 일 3)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4) 곡식단을 묶는 일 5) 타작하는 일 6) 곡식을 까부는 일 7) 곡식이나 거두어 들

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8) 곡식을 가는 일 9) 체질하는 것 10) 반죽하는 것 11) 빵을 굽는 일 12) 양털을 깎는 일 13) 양털을 빠는 일 14) 양을 치는 일 15) 양털을 물들이는 일 16) 실을 짓는 일 17) 실 따위를 엮는 일 18) 두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19)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20)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21) 실을 묶는 일 22) 실을 푸는 일 23) 두 조각을 꼬매는 일 24)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25)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26) 사슴을 도살하는 일 27)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28) 사슴의 고기에 소금을 치는 일 29) 사슴 가죽을 가공하는 일 30) 사슴 가죽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31) 사슴의 가죽을 자르는 일 32) 두 글자를 쓰는 일 33)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34) 건물을 짓는 일 35) 건물을 부수는 일 36) 불을 끄는 일 37) 불을 켜는 일 38) 망치질 39)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안식일의 법규를 어기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여겼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안식일의 법규에 대해서는 미쉬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엣세나파 사람들은 일

반 유대인들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안식일 법규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여서는 안되었으며, 마실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붓는 것, 무엇을 집에서 밖으로 내가거나 밖에서 집으로 들여오는 것, 닫힌 항아리를 여는 것, 새끼를 낳는 짐승을도와주는 것, 집안 청소, 아이를 안아 주거나 업어 주는 것도 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 가까이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을 구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를 어겼을 경우엔 7년동안 구금생활을 하게 하는 엄격한 안식일법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된 것이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매우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의 기적은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도 판단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나 소경같은 경우엔 안식일이 지난 평일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

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마 12:11)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것은, 안식일의 법규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양을 잃는 것이 아까워 법규를 쉽게 어기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절대적인 이유는 "왜 평일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8년동안 귀신걸렸던 여인을 고쳐 주셨을 때도 안식일이었는데(눅 13:10-17) 이때에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이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반박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중요시 여긴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을 때에도 바

리새인들은 그것이 일련의 노동이라고 정죄했지만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했던 행위임을 내세우면서 제사장만 먹었던 진설병 음식을 다윗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삼상 21:1-6).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27).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얽매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아니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

[신 6:1]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 6: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신 6: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 장구케 하시며 크게 번성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하거나 고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육신의 즐거움을 주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거할 것입니다. 죽은 후의 삶이 진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생명을 장구케 하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삶이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인 것입니다.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

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5절).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거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을 정도로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칠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육간에 새길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4대 구절들을 양피지에 그대로 베껴서 그것을 경문갑(經文匣, Phylactery)이라고 하는 성구함에 담아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는 경문(經文)의 풍습으로 발전시켰다

습니다.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6: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 6: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

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 6: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 6: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신 6:1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 6:19]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 6: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 6: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 13: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출 13: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 13: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출 13: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 13: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 13: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출 13: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 13: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 13: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출 13:12]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출 13: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출 13:14]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

하여 내실새 [출 13:15]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 13:16]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또한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나 바깥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유명한 말들을 적은 글을 붙이는 것이 유행했던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적어서 붙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부적붙이는 행위도 고대 근동지역에서 행하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흘러 전해져 온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6: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신 6: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 6: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으며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복을 바라볼 때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인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

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 6: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신 6: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질투와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멸절케 할 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신 6: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 6: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

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신 6:18]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신 6:19]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호렙 산 근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출 17:1-17). 그곳의 이름은 '맛사'였습니다. '맛사'는 '르비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는 맛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멸절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았습니다.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성경에서 받으십시오. 설교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을 받으십시오. 그런 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결코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험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으로 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 6: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신 6: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신 6:22]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신 6:23]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신 6:24]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들의 부모에

게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셨으며 이적과 기사를 저들 집에 베푸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해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을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 사실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가르칩니다. 저들은 지금도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 6: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

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든지 성경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며 세상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근간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면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 것으로 믿을 것이며 스스로의 뜻에 의해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신 6:25]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육적인 의로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육적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적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로움과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의로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이뤄집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육적인 의로움과 영적인 의로움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육적인 의로움은 나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의로움은 우리의 상급과 연관되지만 영적인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

[신 7: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신 7: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 7:3]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신 7:4]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 않

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지 말라 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갑자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도 사실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과 그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

룩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라며 믿지 않는 자를 만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비록 전도를 목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정욕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만남을 가질 때는 더욱 조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 7:5]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불사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요구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길 원하십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가나안의 우상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거할 장소로 가나안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저들의 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가나안 우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처럼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세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엘(EL)

'엘'은 가나안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엘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으며 신들이 모여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을 인도하는 죄고의장이었습니다. 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었으며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견주어서 '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세라(Asherat)

아세라는 '엘'의 아내였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신은 나체 여신상으로 만들어져서 주로 바알신과 함께 숭배되어졌는데 이는 바알은 '엘'의 후계자이고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서 모든 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왕상 14:15, 왕하 13:6, 대하 31:1, 사 17:8, 렘 17:2).

바알 (Baal)

바알은 '엘'의 아들이며 후계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 '하늘의 주(Lord of heavens)'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은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다곤'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삼상 5장, 삿 16:23).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을 가장 많이 숭배했습니다(민 22:41, 삿 10:6, 삼상 7:4, 왕상 19:18). 바알은 모압인들에 의해 '바알브올(Baal-Peor)' 혹은 '브올'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민 25:18). 또한 불레셋 인들은 바알을 '바알세붑(Baal-Zebub)'

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으로 마귀의 별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마 10:25, 막 3:22, 눅 11:15).

아낫(Anath)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중에는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아낫'은 '바알'의 누이이며 애인이었습니다. '아낫'의 모습은 정열적이고 흥분스러운 젊은 여성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가리켜 '미동' 또는 '남색하는 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왕상 14:24, 왕상 15:12, 왕상 22:46, 왕하 23:76).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낫' 여신을 위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마련했습니다(왕하 23:7).

아스다롯 (Ashtaroth)

아스다롯'은 '저녁별의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렘 44:19). '아스다롯'의 모습은 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했습니다(왕상 11:5).

못(Mot)

'바알'신이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착한 신이라면 '못'은 사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신이었습니다(욥 18:13-14). '못'은 '바알'과 싸워 승리하였으나 '바알'의 누이 '아낫'에게 패배한 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낫'은 죽은 '바알'을 살렸고 '바알'은 그렇게 가나안 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얌(Yam)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진 또 다른 악한 신은 '얌'입니다. '얌'은 '못'과 함께 '바알'을 대적했습니다. '얌'은 '리워야단'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같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얌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로 바다 깊은 곳에 산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에는 리워야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우리 나라 말로는 '악어'라고 번역되었습니다(시 74:14, 시 104:26, 욥 41:1, 사 27:1).

몰렉(Molech)

'몰렉'은 '밀곰(Milcom)' '말감(Malcham)'으로 불려졌으며 암몬족속의 국가신이었습니다(레 18:21, 왕상 11:5, 왕상 11:33, 왕하 23:10, 렘 49:3, 행 7:43). 몰렉은 황소 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몰렉'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신 12:31, 겔 16:20). 모세는 몰렉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레 18:21, 레 20:1-5).
솔로몬은 '몰렉'을 위해 신당을 세웠으며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왕하 16:3, 왕하 21:6). 요시아 왕은 몰렉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시켰지만 오히려 유대 말기 때는 더욱 물렉 숭배가 왕성해졌습니다(렘 7:31, 겔 16:20-21, 겔 23:3, 겔 23:39). 사사시대 때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너희 신 그모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모스'가 '몰렉'입니다(삿 11:24).

그모스 (Chemosh)

'그모스'는 모압인의 국가신이었습니다(왕상

11:7, 왕하 23:13, 렘 48:7). '그모스'는 암몬족속의 '몰렉'신과 같은 신으로 '그모스' 신 역시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모스'신을 위해 산당을 건립했습니다(왕상 11:7-8).

다곤 (Dagon)

'다곤'신은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의 모양을 지닌 우상으로 블레셋인들의 신입니다(삼상 5:2, 대상 10:10). '다곤'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써 기원전 2,500년 전부터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곡물의 신으로 섬겨졌던 것은 날씨가 곡물생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 7: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 7: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

라
[신 7: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 7: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 7:10]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매우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전 1: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강한 자를 좋아하고 지혜있는 자를 선호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자를 선호하며 심지어 교회에서도 능력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없는 미련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스스로 잘나서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뽐내며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 7:11]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 7:12]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신 7:13]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신 7:14]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신 7:15]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신 7:1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땅과 소산의 복을 받을 것이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 질 것이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질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이러한 축복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믿음'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고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의로움을 갖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로움을 갖게 합니다.

"[신 6:25]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하여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있는 율법들을 '하라'는 긍정적인 율법과 '하지말라'는 부정적인 율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부정적인 율법은 모두 365개이며 '하라'는 긍정적인 율법의 수는 모두 248개입니다. 248개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뼈와 부분들을 합친 숫자라고 본다면 365개는 1년 365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7:17]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 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신 7:18]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 7: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신 7: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신 7:21]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 7:2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신 7:2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신 7:24]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워 저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는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중독증도 대적입니다. 술중독, 마약중독 뿐 아니라 게임중독들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적들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릴의 대적과 싸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 7:25]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신 7:26]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가증한 것을 들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가증한 것으로 인해 진멸당할까 염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그것을 가정에 들이는 우리까지 진멸하실 것입니다.

'가증한 것'의 원어는 <토에바>로써 '몹시 싫어하는 것', 또는 '지독하게 미워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혐오스럽거나 구역질 나게 하는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우상들을 가르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상들은 구역질 나게 하는 더러운 것입니다.

613개 율법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계명과 규례와 법도'의 합친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과 더불어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통해 영적인 의로움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통해 육적인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율법'을 통해 먼저 육적인 의로움을 얻고서 비로소 '믿음'을 통해 영적인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대인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Maimonides)가 최초로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613개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13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이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이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 부분의 총합이라고 한다. 365 숫자는 1년 365일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 - 3)

제 1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
2.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창 17:10).
3.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된다(창 32:32).

출애굽기 (4 - 114)

4.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출 12:2).
5.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니산 월 14일 오후에 흠이 없는 1년된 수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출 12:5-6).
6. 유월절 양으로 바친 제물은 니산 월 15일 밤에 먹어야 한다(출 12:8).
7. 유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된다(출 12:9).
8. 유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된다(출 12:10).
9. 유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출 12:15).
10. 누룩없는 떡(무교병)을 니산 월 15일에 먹어야 한다(출 12:18).
11. 유월절 기간동안에는 누룩으로 만든 떡을 먹어서는 안된다(출 12:19).

12. 유월절에는 조금이라도 누룩이 섞인 떡을 먹지 말라(출 12:20).
13. 변절한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3).
14.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도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3).
15. 유월절 희생 양의 고기는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출 12:46).
16. 양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된다(출 12:46).
17.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출 12:48-49).
18.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출 13:2).
19. 유교병(누룩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된다(출 13:3).
20. 유월절 이레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나 누룩을 다 없애야 한다(출 13:7)
21. 아버지는 잔녀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출 13:8).
22. 나귀의 첫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출 13:13).
23. 나귀를 양을 통해서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출 13:13).

24.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에 관한 규정(출 16:29).
25.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출 20:2).
26.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출 20:3).
27. 우상을 만들지 말라(출 20:4).
28.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출 20:5).
29. 우상을 섬기지 말라(출 20:5)
30.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된다(출 20:7).
31. 안식일을 기억하라(출 20:8).
32.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된다(출 20:10).
33.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34. 살인하지 말라(출 20:13).
35. 간음하지 말라(출 20:14).
36. 도적질하지 말라(출 20:15).
37.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3).
38. 탐내지 말라(출 20:17).
39.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출 20:23)
40. 제단을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는 안된다(출 20:24-25).
41. 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를 놓아서는 안된다(출

20;26).
42. "히브리 종은 일곱째 되는 해에 자유케 하라"(출 21:2).
43. 종의 보호에 관한 규정
44. 주인이 아내로 취하려고 산 여종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출 21:8).
45. 그녀를 다시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출 21:8).
46. 여종을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녀를 딸처럼 대하여 한다(출21:9)
47.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출 21:12).
48.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출 21:15, 17).
49.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18-19).
50. 종을 상해하거나 죽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20-21)
51. 소가 받아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관한 규정(참조. 출 21:28-32, 35-36)
52.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28-32, 35-36)
53. 구덩이에 짐승이 빠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1:33-34)
54. 도둑에 관한 규정(출 22:1-4)
55. 남의 농작물을 가축이 뜯어먹은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5)
56. 불을 내서 이웃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6).
57. 보관물에 대한 규정(출 22:7 이하)
58.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9)
59. 맡긴 집짐승이 다치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0-11)
60. 빌려 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4-15)
61. 처녀를 꾀어서 건드린 경우에 관한 규정(출 22:16-17)
62.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출 22:18).
63.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출 22:21).
64.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출 22:21).
65. 과부와 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출 22:22-25)
66.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출 22:25).
67. 돈을 빌려주었으면 빚쟁이처럼 독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출 22:25).
68.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출 22:25).
69. 재판장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출 22:28).
70.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출 22:28).
71. 지도자들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출 22:28).
72. 첫 것을 바치는 것에 관한 규정(출 22:29-30)
73.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출 22:31).
74.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출 23:1).
75.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출 23:1)
76.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출 23:2).
77.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된다(출 23:2).
78. 다수를 따라야 한다(출 23:2).
79.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된다"(출 23:6).

80.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울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출 23:5).
81.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출 23:6).
82.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출 23:7).
83.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된다"(출 23;8).
84. 안식년에는 농경지에 아무 것도 심어서는 안된다.
85.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
86.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불러서도(기억해서도) 안된다(출 23:13).
87. 다른 신들의 이름은 입밖에도 내서도 안된다(출 23:13).
88.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출 23:14).
89.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된다"(출 23:18a; 34:25a).
90.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된다"(출 23:18b; 34:25b).

91.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한다(출 23:19a; 34:26a).
92.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된다"(출 23:19b; 34;26b).
93. 팔레스타인의 7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된다(출 23:23).
94. 팔레스타인의 일곱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출 23:34).
95.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출 20:24).
96.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출 25:15).
97.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출 25:30).
98. 증거궤 앞에 쳐 놓은 휘장 밖에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밤에는 늘 켜 두어야 한다(출 27:21).
99.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규정(출 28:2)

100. 가슴받이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출 28:28).
101.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목을 위하여 파 놓은 구멍의 둘레를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출 28:32).
102. 제사장만이 속죄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출 29:33).
103.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야 한다(출 30:7-8).
104. 분향단 위에다가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일 이외에는 어느 것도 해서는 안된다(출 30:9).
105. 회막 세금에 관한 규정(출 30:13)
106.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한다(출 30:19-20).
107.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정(출 30:25)
108. 성별하는 기름은 아무에게나 부어서는 안된다(출 30:32a).
109.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똑같은 기름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출 30:32b).
110. 사사로이 쓰려고 유향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향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제110 계명; 출 30:37).

111. 우상숭배자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출 34:15).
112. 안식일에는 밭갈이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에도 일해서는 안된다(출 34:21).
113.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된다"(출 34:26).
114.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된다(출 35:3).

레위기 (115 - 361)

115. 번제(burnt offering 또는 holocaust)에 대한 규례(레 1장)
116. 곡식제물에 대한 규정(레 2장)
117. 곡식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 있어서는 안된다(레 2:11).
118. 모든 곡식제물에는 소금이 빠져서는 안된다(레 2:13a).
119. 어떤 제물에도 소금을 빠뜨려서는 안된다(레 2:13b).
120. 이스라엘 온 회중이 산헤드린의 잘못된 결정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4:13).

121. 개인이 실수를 한 경우에도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레 4:27-28).
122.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고 은닉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레 5:1).
123. 속죄제물을 바쳐야 하는 경우
124. 새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면 그것은 다른 짐승을 제물로 가져온 경우와는 달리,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잡지 않고 제사장이 직접 그것의 목을 비틀어서 잡아야 하는데, 이 때 목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레 5:8).
125. 가난하여 속죄제물로 짐승이나 새를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밀가루를 바칠 수 있으나,이 때, 제사장은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는 안된다(레 5:11).
126. 또한 거기에 향을 얹어서도 안된다(레 5:11).
127. 제물을 바치다가 실수하여 죄를 범하면 바친 것의 20 %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레 5:15-16).
128. 부정적인 계명(금지 계명)을 실수로 어긴 경우에도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레 5:17-18).
129.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의하게 취한 경우에 관한 규정(레 6:1-5).

130. 남의 물건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자는 모두 물어내야 한다(레 6:5).
131. 제단의 재에 대한 규례(레 6:10-11)
132.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한다(레 6:12).
133.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된다(레 6:12).
134. 곡식제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레 6:16).
135. 제사장은 곡식제물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된다(레 6:17).
136.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들처럼 곡식제물로 밀가루를 드려야 하는데, 그는 매일마다 그래야 했으며, 그것으로 아침 저녁 빵을 구워 바쳐야 한다(레 6:20 이하).
137.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한다. 그것은 다 태워 버려야 한다(레 6:23).
138. 속죄제물은 번제물을 드리는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레 6:25 이하).
139. 성소에서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제물도 먹어서는 안된다(레6:30).
140. 속건제물을 드릴 때의 규례(레 7:1 이하)
141.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경우에는 빵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레 7:11-12).

142.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 날로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된다(레 7:15).
143.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바친 고기는 이틀째 되는 날까지 다 먹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까지 그 희생제물이 남아 있으면, 불살라야 한다(레 7:17).
144. 어떤 종류의 것이든(감사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 중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레 7:18).
145. 어떤 종류의 화목제물이든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레 7:19a),
146. 그리고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레 7:19b).
147. 동물의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레 7:23).
148.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된다(레 7:26).
149. 제사장은 머리를 풀어서는 안된다(레 10:6),
150. 그는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도 안된다(레 10:6).
151. 제사장은 성전(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레 10:7).
152. 제사장은 성전(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레 10:9, 11).
153. 땅에서 사는 짐승들 가운데 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다(레

11:2-4, 7).
154.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등과 같이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못한다(레 11:4).
155. 물 속에서 사는 동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레 11:9, 12).
156.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12).
157. 새 가운데서 먹지 말아야 할 것(레 11:13).
158. 곤충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것들은 먹지 못한다(레 11:21).
159. 길짐승에 대한 규정(레 11:29 이하)
160. 요리가 된 젖은 음식에 죽은 길짐승이 닿으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된다(레 11:34).
161.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 주검을 만진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레 11:39).
162.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41-42).
163. 과일이나 채소에 붙어사는 벌레는 먹지 알아야 한다(레 11:41-42).
164. 물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먹어서는 안된다(레 11:46).
165. 흙에서 생긴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레 11:44).

166. 산모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정(레 12:1 이하)
167.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레 2:6).
168.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 예식을 위해 바쳐야 할 제물(레 12:6-8)
169. 제사장이 나병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레 13:2).
170. 백선이 머리나 턱에 생긴 경우,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레 13:33).
171.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레 13:45).
172.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에 관한 규정(레 13:47-59)
173.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경우에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한다(레 14:2, 3)
174. 악성 피부병이 나은 사람은 이레 후에 모든 털을 다 밀어야 한다(레 14:9).
175. 또한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제 175 계명; 레 14:9).
176. 악성 피부병을 고침 받은 사람이 바쳐야 할 제물(레 14:10 이하)

177. 건물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레 14:34 이하)
178. 성기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는 남자는 부정한 사람이며, 그와 접촉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레 15:1-12).
179. 고름이 멎은 경우에는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레 15:13-15).
180. 남자가 실수로 정액을 흘린 경우에 관한 규정(레 15:16-18)
181. 월경에 관한 규정(레 15:19 이하)
182.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여겨야 하며,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레 15:2 이하).
183. 그녀의 병이 다 난 다음에는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레 15:25 이하).
184. 보통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레 16:2).
185.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정(레 16장).
186. 희생제물은 성전(성소)에서만 드려야 한다(레 17:3-4).
187. 짐승의 피는 땅에 묻어야 한다(레 17:13).
188. 가까운 살붙이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6).

189. 아버지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7).
190.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7).
191.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8).
192.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 누이가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그녀를 범하면 안 된다(레 18:9).
193. 손녀나 외손녀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10).
194. 아버지가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레 18:10).
195. 딸의 몸을 범하면 안된다(참조. 레 18:10).
196.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낳은 딸을 범해서는 안된다. 즉 배다른 누이를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1).
197. 고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2).
198. 이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3).
199. 숙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4).
200. 숙모의 몸을 범하는 것은 삼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레 18:14).
201. 며느리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5).
202.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6).
203. 데리고 사는 여자의 딸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7).
204. 데리고 사는 여자의 손녀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7).
205. 데리고 사는 여자의 외손녀의 몸을 범해서는 안된다(레 18:17).
206.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내의 형제들을 첩으로 데려다가 살아서는 안된다(레 18:18).
207. 여자가 월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된다(레 18:19).
208.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서는 안된다(레 18:21).
209. 동성 연애 금지에 관한 규정(레 18:22)
210. 남자들은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된다(레 18:23).
211. 여자들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된다(레 18:23).
212. 부모를 두려워하라(레 19:3).
213.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레 19:4).
214. 쇠를 녹여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된다(레 19:4).
215. 제물로 바친 것들은 그 날로 다 먹어야 한다(레 19:6).
216. 농작물이나 과수를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9-10),

217. 그것들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레 19:9-10).
218. 농작물을 거두어들일 때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9),
219.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레 19:9).
220. 포도원의 포도를 조금은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10),
221.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레 19:10).
222.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는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며(레 19:10),
223. 그것을 다 주워서는 안된다(레 19:10).
224. 훔치지 말라(레 19:11).
225. 사기하지 말라(레 19:11).
226. 속이지 말라(레 19:11).
227.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레 19:12).
228. 이웃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레 19:13).
229.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레 19:13).
230. 품삯은 그날로 지불해야 한다(레 19:13).
231.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된다"(레 19:14).
232.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

서는 안된다"(레 19:14).
233.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레 19:15).
234. 누구도 편들어서는 안된다(레 19:15).
235. 그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만을 해야 한다(레 19:15)).
236.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된다"(레 19:16a).
237.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레 19:16b).
238.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된다"(레 19:17a).
239.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레 19:17b).
240.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된다(참조. 레 19:17a).
241. 이스라엘 백성끼리 원수를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레 19:18a),
242. 앙심을 품어서는 안된다(레 19:18a).
243.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레 19:18b).
244. 가축 가운데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된다(레 19:19).
245.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된다(레 19:19).
246. "할례 받지 못한" 과일에 관한 규정(레 19:23)
247. "거룩한 과일"에 관한 규정(레 19:24)
248. 피째로 먹어서는 안된다(레 19:26).
249. 점을 쳐서도 안 되며(레 19:26),
250. 마법을 써서도 안된다(레 19:26).
251.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아서는 안된다(레 19:27).
252. 구레나룻을 밀어서는 안된다(레 19:27).
253.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된다(레 19:28).
254.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레 19:30).
255.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에게 가지 말아야 한다(레 19:31).
256. 점을 치는 사람에게 가서도 안된다(레 19:31; 20:6).
257. 어른을 공경하라(레 19:32).
258.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바른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레 19:35).
259. 그리고 정확하게 재야 한다(레 19:36).
260.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레 20:9).
261. 남자가 그의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면 그들은 모두 화형에 처해야 한다(레 20:14).

262. 이교도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레 20:23).
263. 제사장이 주검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된다(제 263 계명).
264. 그러나 가족의 주검은 만질 수 있다(제 264 계명; 레 21:1-4).
265. 주검을 만져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의적인 목욕을 한 뒤 그날 저녁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레 21:6; 22:7).
266.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된다(레 21:14-15).
267. 제사장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된다(레 21:7).
268.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된다(레 21:7).
269.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레 21:8).
270. 대제사장은 어떤 주검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레 21:11).
271. 대제사장은 가족의 주검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레 21:11).
제 272 계명. 대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레 21:13).
273.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해서는 안된다(레 21:14).
274. 대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된

다(레 21:14).
275. 아론의 후손 가운데 몸에 (영구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레 21:17).
276. 일시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도 그것이 날 때까지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참조. 레 21:17).
277.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레 21:23).
278.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참조. 레 22:2).
279. 그는 성물(聖物)을 먹을 수 없다(레 22:4).
280.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레 22:10).
281.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품꾼도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레 22:10).
282. 할례 받지 않은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참조. 레 22:10 이하).
283. 제사장의 딸이더라도 여느 남자에게로 시집간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레 22:12).
284. "테벨"(tevel)은 먹지 말아야 한다(참조. 레 22:16).
285. 흠있는 짐승을 거룩하게 해서는 안된다(레 22:19).

286.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레 22:20-21).
287. 제물에 흠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레 22:21).
288. 흠이 있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는 안된다(레 22:22).
289. 흠이 있는 짐승을 잡아서는 안된다(레 22:22).
290. 흠이 있는 짐승의 내장을 불살라서는 안된다(레 22:22).
291. 거세(去勢)해서는 안된다(레 22:24).
292. 이방인이라도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한다(레 22:25).
293.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난지 여드레가 지난 것이라야 된다(레 22:27).
294. 제물로 짐승을 바칠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된다(레 22:28).
295.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레 22:32).
296.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레 22:32).
297. 유월절 첫날은 쉬어야 한다(레 23:7).
298. 유월절 첫 날은 생업을 위하여 일해서는?안된다(레 23:7).

299.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계속 번제를 드려야 한다(레 23:8).
300. 유월절 기간중 이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쉬어야 한다(레 23:8).
301. 그날은 생업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된다(레 23:8).
302. 유월절 둘째 날에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레 23:10).
303. 첫 곡식 단을 바치기 전에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된다(레 23:14).
304. 첫 곡식 단을 바치기 전에는 볶은 곡식도 먹어서는 안된다(레 23:14).
305. 또한 햇곡식도 먹어서는 안된다(레 23:14).
306.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 날부터 49일이 되는 때까지 매일매일 날을 세어야 한다(레 23:15).
307. 오순절에는 햇곡식으로 만든 빵 두개를 바쳐야 한다(레 23:17).
308. 오순절에는 쉬어야 한다(레 23:21).
309. 오순절에는 생업을 위해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레 23:21).
310. 새해 첫날(일곱째달 초하루)은 쉬어야 한다(레 23:24).

311. 새해 첫 날에는 일해서는 안된다(레 23:25).
312. 새해 첫날은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25).
313. 속죄일에는 금식해야 한다(레 23:27).
314. 속죄일에는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27).
315.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레 23:28).
316. 속죄일에는 어떤 것도 먹거나 마셔서는 안된다(레 23:29).
317. 속죄일에는 쉬어야 한다(레 23:32).
318. 초막절 첫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레 23:35).
319. 초막절에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해서도 안된다(레 23:35).
320.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36).
321.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쉬어야 한다(레 23:36).
322.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레 23:36).
323. 초막절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생업을 위해 일해서는 안된다(레 23:37).
324. 초막절 첫날에는 좋은 나무에서 난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갯버들을 가져와야 한다(레 23:40).
325. 초막절 기간에는 이레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레 23:42).
326. 안식일에는 땅을 놀려야 한다(레 25:4).
327. 안식년에는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된다(레 25:4).
328. 안식년에 저절로 열린 곡식들도 거두어 드려서는 안된다(레 25:5).
329. 안식년에는 저절로 열린 과실들도 거두어 드려서는 안된다(레 25:5).
330. 안식년을 일곱번 세어야 한다(레 25:8).
331. 속죄일에는 뿔나팔을 불어야 한다(레 25:9).
332. 50년째 되는 해(희년)를 거룩히 여기라(레 25:10).
333. 희년에는 심거나 거두어서는 안된다(레 25:11).
334. 희년에는 저절로 열린 포도를 거두어들여서도 안된다(레 25:11).
335. 희년에는 저절로 맺힌 열매를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
336. 무엇을 사거나 팔 때에 부당한 이익을 남겨서는 안된다(레 25:14).
337. 속이지 말라(레 25:14).

338. 말을 함부로 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레 25:17).
339.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레 25:23).
340. 희년에는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레 25:24).
341.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에는 일년 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지만, 일년이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희년이 되어도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레 25:29, 30).
342. 레위 사람의 땅과 집에 관한 규정(레 25:32-34).
343.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를 취해서는 안된다(레 25:36, 37).
344. 가난하여 종이 된 동족(同族)에 대해서는 노예 부리듯 해서는 안된다(레 25:39).
345. 동족인 종은 팔 수 없다(레 25:42).
346. 동족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된다(레 25:43).
347. 종이 가나안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영원히 부릴 수 있다(레 25:46).
348. 이교도들에게 동족이 종으로 팔려 갔으면,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되돌려와야 한다(레 25:53).
349. 조각한 석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된다(레

26:1).
350.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해 놓고 돈으로 바치는 경우에 관한 규정(레 27:2-9).
351. 제물은 바꿔치기 할 수 없다(레 27:10).
352. 바꿔치기한 제물은 본래의 제물과 바꿔치기한 제물 둘 다를 드려야 한다(레 27:10).
353.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짐승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레 27:9-14)
354. 주께 바치기로 한 (또는 바친) 집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관한 규정(레 27:14).
355. 주께 바치기로 한 (또는 바친) 땅 대신에 돈으로 바칠 경우에 대한 규정(레 27:16).
356. 짐승의 맏배 대신 더 좋은 것이라 하여 다른 것을 바쳐서는 안된다(레 27:26).
357. 주께 바친 것은 무를 수 없다(레 27:28).
358. 주께 바친 땅은 팔 수 없다(레 27:28).
359. 주께 바친 땅은 무를 수도 없다(레 27:28).
360. 가축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레 27:32).
361. 십일조로 드려야 할 가축을 팔아서는 안된다(레 27:33).

민수기 (362 - 413)

362.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민 5:2).
363.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민 5:3).
364. 남에게 잘못을 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민 5:6,7).
365.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규정(민 5:12-28)
366. 아내의 간통을 밝히기 위해 바치는 제물에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제 366 계명).
367. 그 제물에는 향을 얹을 필요도 없다(민 5:15).
368. 나실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민 6:3).
369. 나실 사람은 포도를 먹어서는 안된다(민 6:3).
370. 그는 마른 포도를 먹어서도 안된다(민 6:3).
371. 나실 사람은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된다(민 6:4).
372. 그는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된다(민 6:4).
373. 나실 사람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된다(민 6:5).

374. 그는 머리를 길게 자라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민 6:5).
375. 나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민 6:6).
376. 그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민 6:7).
377. 나실 사람은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민 6:13-14).
378. 제사장은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민 6:23).
379.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민 7:9).
380.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다시 지켜야 한다(민 9:10).
381. "두 번째 유월절"(또는 "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룩을 먹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한다(민 9:11).
382. 그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된다(민 9:12).
383. 희생 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된다(민 9:12).
384. 성소에서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10:8).
385.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제

사장에게 헌납물로 드려야 한다(민 15:18-20).
386.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민 15:38).
387.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민 15:39).
388.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를 지켜야(보호해야) 한다(민 18:4).
389.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각자가 할 일을 해야 한다(민 4:19)
390. 아무나 성소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민 18:4, 22).
391. 일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민 18:40).
392. 짐승의 맏배는 제사장의 몫으로 바쳐야 하되, 사람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그것을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바쳐야 한다(민 18:15, 16)
393. 정결한 짐승의 맏배는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서는 안된다(민 18:15).
394. 회막 일은 레위인이 하여야 한다(민 18:23).
395.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간다(민 18:24).
396. 레위인도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민 18:26).
397.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규례(민 19:2)
398.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

정을 타게 된다(민 19:14).
399. 부정을 탄 사람은 물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민 19:20).
400.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민 27:8).
401. 번제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1년된 숫양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민 28:3).
402. 안식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민 28:9).
403.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년된 숫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민 28:11).
404. 오순절(칠칠절)에 드려야 할 제물(민 28:26-31)
405. 신년(새해)에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민 29:1).
406.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민 30:3-9)
407.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한다(민 30:2).
408. 레위 사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민 35:2, 7).
409.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민 35:12).
410. 살인 혐의자를 도피성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규정(민 35:25)
411.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민 35:30).
412. 살인자를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된다(민 35:31).
413.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서는 안된다(민 35:32, 33).

신명기 (414 - 613)

414.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신 1:17).
415.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신 1:17).
416.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된다(신 5:21).
417.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에 관한 규정(신 6:4)
418.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5).
419.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신 6:7).
420. 매일 쉐마를 암송하라(신 6:7).

421. 경문(테필린)을 손에 매라(신 6:8).
422. 경문을 이마에도 붙이라(신 6:8).
423. 집 문설주와 대문에 메주라(mezura)를 붙여라(신 6:9).
424. 하나님과 예언자를 시험해서는 안된다(신 6:16).
425. 가나안의 7 민족을 진멸해야 한다(신 7:2).
426.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신 7:2).
427. 가나안의 7민족과 결혼해서는 안된다(신 7:3).
428. 이교도들의 신상을 불태우고, 그 위에 입힌 보석들을 탐내서는 안된다(신 7:25).
429.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들을 집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신 7:26).
430.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들 드려야 한다(신 8:10).
431.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신 10:19).
432.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신 10:20).
433. 하나님을 섬기라(신 10:20).
434. 하나님에게만 가까이하라(신 10:20).
435. 맹세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신 10:20).
436. 이교도들이 신을 섬기는 장소는 어느 곳이나 다 허물어야 한다(신 12:2).

437. 거룩한 것들을 없애서는 안된다(신 12:4).
438.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신 12:6).
439. 번제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신 12:13).
440. 다른 모든 제물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신 12:14).
441.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짐승의 고기를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다(신 12:15).
442. "두 번째 십일조"로 바친 곡식은 예루살렘 밖에서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3. "두 번째 십일조"로 바친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된다(신 12:17).
444. 기름도 마찬가지이다(신 12:17).
445.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예루살렘 밖에서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6.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린 것도 성전 밖에서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7. 번제물로 드린 것은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8. 제물의 피를 뿌리기 전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49. 첫열매로 바친 것은 일반 사람이 먹어서는 안된다(신 12;17).
450. 레위 사람을 저버려서는 안된다(신 12:19).

451. 짐승을 잡는 것에 관한 규정(신 12:20, 21)
452. 산 짐승의 신체 중 일부를 먹어서는 안된다(신 12:23).
453. 제물은 성전으로 가져가야 한다(신 12:26).
454. 토라에 하나라도 더해서는 안된다(신 12:32).
455. 토라에서 하나라도 빼서는 안된다(신 12:32).
456.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신 13:1).
457. 유혹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신 13:7-10).
458. 이방 신에게로 유혹하는 자를 증오하라(신 13:9).
459. 그들을 죽여야 한다(신 13:9).
460. 그들을 감싸주어서도 안된다(신 13:9).
461.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숨겨서도 안된다(신 13:9).
462.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는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신 13:10).
463.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야 한다(신 13:14).
464.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에게로 빠진 성읍은 불살라야 한다(신 13:15).

465. 그런 성읍은 다시 세워서도 안된다(신 13:16).
466. 그 성읍에서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된다(신 13:17).
467.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된다(신 14:1).
468.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머리를 밀어서는 안된다(신 14:1).
469.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된다(신 14:3).
470. 새는 그것이 정한 것인지 알아보고 먹어야 한다(신 14:11).
471. 날개 달린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어서는 안된다(신 14:19).
472.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신 14:21).
473. "두 번째 십일조"에 관한 규정(신 14:23-27)
474.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에 관한 규정(신 14:28-29)
475. 안식년에는 동족(同族) 유대인의 빚을 삭쳐 주어야 한다(신 15:2).
476. 안식년이라도 이방인에게 준 빚은 받아야 한다(신 15:3a).
477. 안식년에는 유대 동족의 빚을 삭쳐 주어야

한다(신 15:3b).
478. 가난한 동족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신 15:7).
479.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신 15:8).
480. 안식년이 가까온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신 15:9).
481. 종을 놓아줄 때에는 빈 손으로 보내서는 안된다(신 15:13).
482. 그들에게 넉넉히 주어 내보내야 한다(신 15:14).
483. 하나님께 바칠 짐승의 맏배를 부려서는 안된다(신 15:19a).
484. 제단에 바칠 첫새끼 양의 털을 깎아서도 안된다(신 15:19b).
485. 니산 월 정오가 지나서는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된다(신 16:3).
486.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된다(신 16:4).
487. 유월절 양을 성전 이외의 곳에서 바쳐서는 안된다(신 16:5).
488. 3대 절기는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신 16:14).
489. 모든 성인 남자는 일년에 세차래 예루살렘

에 올라가야 한다(신 16:16).
490. 제물이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신 16:16).
491. 모든 성읍에는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신 16:18).
492. 성전에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된다(신 16:21).
493. 어느 곳에도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된다(신 16:22).
494. 흠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된다(신 17:1).
495. 산헤드린의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신 17:10).
496.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된다(신 17:11).
497. 이스라엘의 왕은 산헤드린에서 임명받아야 한다(신 17:15a).
498. 외국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된다(신 17:15b).
499. 왕은 군마를 필요 이상으로 가져서는 안된다(신 17:16a).
500. 왕은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된다(신 17:16b).
501.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된다(신 17:17a).

502. 왕은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된다(신 17:17b)
503. 왕은 율법 책을 복사해야 한다(신 17:18, 19).
504.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이어받지 못한다(신 18:1).
505. 레위 지파는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신 18:1).
506. 제사장은 제물의 특별한 부위들을 가질 수 있다(신 18:3).
507.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신 18:4).
508.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신 18:4).
509. 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일해야 한다(신 18:6-8).
510. 점쟁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1. 복술객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2. 주문을 외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3. 마법사를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4. 마술하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신 18:10).
515. 죽은 사람에게 물어 보는 사람을 용납해서

는 안된다(신 18:10-11).
516.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신 18:15).
517.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신 18:20).
518.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해서는 안된다(신 18:20).
519. 거짓 예언자는 죽여야 한다(신 18:22).
520.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마련해야 한다(신 19:3).
521. 살인자를 동정해서는 안된다(신 19:13, 21).
522. 이웃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된다(신 19:14)
523.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된다(신 19:15).
524.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게는 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벌을 내려야 한다(신 19:19).
525.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신 20:1).
526. 전쟁터에서 되돌려 보내야 할 사람들에 관한 규정(신 20:5-7)
527.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제의하라(신 20:10, 11).

528. 가나안의 7 민족을 진멸하라(신 20:16).
529. 성읍을 점령할 때 나무들을 베버리지 말라(신 20:19).
530.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규정(신 21:1-9)
531.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을 위해서 송아지를 죽인 험한 계곡에서는 일도 하지 말고 그곳에 씨도 뿌리지 말라(신 21:4).
532. 포로로 잡혀 온 여인을 아내로 취해도 된다(신 21:10, 11).
533. 그러나 그 여인을 팔아서는 안된다(신 21:14a).
534. 그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도 안된다(신 21:14b).
535.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신 21:22).
536. 그러나 그 주검을 밤까지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신 21:23).
537. 그 주검은 그 날로 파묻어야 한다(신 21:23).
538.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신 22:1).
539. 그리고 그것을 못본체 해서는 안된다(신 22:3).
540. 이웃의 짐승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을 도와 그 짐승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신 22:4).
541. 짐승에게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도와주어야 한다(신 22:4).
542.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신 22:5a).
543.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신 22:5b).
544.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새를 잡아서는 안된다(신 22:6).
545. 새끼를 잡기 전에 먼저 어미 새를 날려보내야 한다(신 22:7).
546.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신22:8a).
547. 그리고 집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신 22:8b).
548.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려서는 안된다(신 22:9a).
549. 그리고 거기에서 거둔 곡식도 먹어서도 안된다(신 22:9b).
550.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같이 밭을 갈게 해서는 안된다(신 22:10).
551.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잔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신 22:11).
552. 결혼의 성립에 대한 규정(신 22:13)

553. 아내에게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 관한 규정 (신 22:14-18)
554. 아내에게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 누명을 씌운 사람은 평생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신 22:19).
555. 성 안에서 한 남자와 다른 사람에게 약혼한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둘 다 돌로 쳐죽여야 한다(신 22:24).
556. 그러나 성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남자만 돌로 쳐죽여야 한다(신 22:26).
557.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신 22;29).
558. 그리고 그는 그녀와 결혼해야 하되, 그 여자와 이혼해서는 안된다(신 22:29).
559. 신낭이 터졌거나 신(腎)을 베인 사람은 주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신 23:1).
560. 사생아는 주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신 23:2).
561. 유대인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과는 영원히 결혼할 수 없다(신 23:3).
562.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는 평화 관계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신 23:6).

563.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신 23:7a).
564. 이집트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된다(신 23:7b).
565.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진(陳)에 들어갈 수 없다(신 23:10, 11).
566. 화장실은 진 밖에 만들어야 한다(신 23:12).
567. 군인은 무기와 더불어 삽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신 23:13).
568. 도망온 종을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신 23:15).
569. 그리고 그들을 압제해서도 안된다(신 23:16).
570. 이스라엘 자손은 창녀나 남창이 되어서는 안된다(신 23:17).
572. 동족에게서 이자를 취해서는 안된다(신 23:20).
573.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신 23:21).
574.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은 지체함이 없이 지켜야 한다(신 23:21).
575.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신 23:23).
576.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다(신 23:24a).
577. 그러나 그릇에 담아 가면 안된다(신 23;24b).
578.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곡식에 낫을 대면 안된다(신 23:25).
579. 이혼 증서에 대한 규정(신 24:1 이하)
580. 이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된다(신 24:4).
581. 새신랑은 1년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신 24:5a).
582.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하다(신 24:5b).
583. 맷돌을 저당 잡아서는 안된다(신 24:6).
584. 악성 피부병의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신 24:8).
585. 담보물을 잡으려고 집에 들어가서는 안된다(신 24:10).
586. 담보물은 그날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신 24:12).
587. 담보물을 그것을 잡힌 사람이 필요한 때에 즉시로 돌려주어야 한다(신 24:13).
588. 품꾼에게는 그날로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신 24:15).

589.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신 24:16).
590. 외국 사람과 고아에게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된다(신 24:17).
591.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된다(신 24:17).
592.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잊어버리고 거두어들이지 않은 단을 다시 가서 취하여 와서는 안된다(신 24:19).
593. 그것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신 24:20).
594. 형벌로 매를 맞을 경우에는 재판관은 매 맞을 사람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신 25:2).
595. 그러나 40대 이상 때려서는 안된다(신 25:3).
596.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된다(신 25:4).
597.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된다(신 25:5a).
598.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신 25:5b).
599.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신 25:7-10)

600. 음낭을 잡는 자를 보고도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신 25:11).
601. 그에게는 동정심을 보여서는 안된다(신 25:12)
602. 집에 크고 작은 두개의 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신 25:14).
603.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신 25:17).
604.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신 25:18).
605. 그리고 절대로 그들이 한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신 25:18).
606. 햇곡식을 예물로 바칠 때 드리는 고백(신 26:5-10)
607.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를 드린 것에 대한 고백(신 26:12-15)
608. 십일조를 애곡하는 날에 먹어서는 안된다(신 26:14a).
609. 그리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먹어서도 안된다(신 26:14b).
610. 또한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된다(신 26:14c).
611.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신 26:17).
612. 안식년 장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야 한다(신 31:12-13).

613. 토라(율법)를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신 31:19).

신명기 8장 ==========

[신 8:1]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신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케 하신 이유는 저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나 스스로 음식을 공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신 8: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릍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8: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 8: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 8: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신 8: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 8:9]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신 8:10]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이 해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육신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기도 하지만 징계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 12: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신 8:11]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 8:12]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신 8:13]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신 8:14]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신 8: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

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신 8:16]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 8:17]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신 8: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심은 저들로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들을 시험하신 까닭은 저들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16절).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 오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이 어딘들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

한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시험을 통해 주어집니다.

[신 8: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신 8:20]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가 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우상섬김의 죄는 하나님의 크신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

[신 9:1]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신 9:2] 그 백성은 네가 아는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신 9:3]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낙 자손은 크고 많은 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낙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시니 그 거대하고 두려웠던 아낙 자손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작고 해결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문

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는 '아낙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아낙 자손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작아집니다.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죽음이 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은 더해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당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아낙 자손과 같은 문제가 닥친다면 그 순간에 당신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 9: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신 9:5]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 9:6]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진멸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낙 자손을 진멸시켰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자신 밖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스스로의 낮고 천함을 바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낙 자손을 진멸시켜 주십니다. 여전히 목이 곧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낙 자손을 진멸시켰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목이 곧은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목을 곧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목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 9:7]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신 9:8]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격노케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격노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격노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격노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격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

나님의 내리시는 형벌이 두려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처입힐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을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격노케 만들었던 불순종의 모습을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본다면 아마 당신은 많이 놀라게 될 것이며 그동안 행한 불순종의 모습들로 인해 온몸이 떨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신 9:9]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신 9:10]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네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 9:11] 사십 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준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계명을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돌판을 바라봤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돌판이 주어졌습니다. 그 돌판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 온갖 계명들로 가득찬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책입니다.

[신 9:12]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신 9:13]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

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바라보기도 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를 떠나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송아지였습니다.

"[출 32: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황소 형상을 한 아피스(Apis)를 비롯하여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황소 형상은 애굽의 아피스를 본뜬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황소신 모양을 본따서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행위로 인해 격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40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호렙산

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 불과 40일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호렙산 정상으로 나아갔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거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리라 서약하였습니다.

"[출 24: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40일도 채 안되어서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저들과 같아서 40일이 채 안되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하나 온전치 못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추악한 죄악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죄없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황소 신을 섬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신 9:14]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신 9:15]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신 9:16]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신 9:17]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신 9:18]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

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성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과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끔찍히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며 심지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복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진리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악한 세력의 방해때문입니다. 그러한 방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가장 하나님을 미워했으며 가장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까닭은 악한세력의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안타까움이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하염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낀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는 당신의 죄입니다.

[신 9:19]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 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신 9: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 9:21]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찧고 티끌 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신 9:22] 너희가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격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출 32:10]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격노하심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출 32: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출 32: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 32: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 32: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실은 모세도 격분하였습니다. 어찌나 화가 났던지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깨뜨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모세가 정작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바라봤을 때 격분하여 성스런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형 아론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간청은 하나님의 격노를 막았고 사망의 형벌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중보를 통해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밉고 꼴보기 싫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떼를 쓰며 간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형 아론이 백성을 잘못 인

도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론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성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잘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비록 보기싫고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기조차 싫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경을 넓혀지는 것입니다.

[신 9:23]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24절)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에 매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 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섬겨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말은 매우 큰 충격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 모세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 아마도 매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말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악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깨끗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섬긴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 주님..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밖에 없는 이 죄인을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만이 나를 숨쉬게 하오니 자비를 베푸소서!"

[신 9:24]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신 9:25]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신 9:26]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신 9:27]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퍅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신 9:28]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

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일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신 9:29]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모세는 또 다시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스스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번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에 들어갔고 두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고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 뿐입니다.

모세는 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간구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 자리를 잃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간악한 민족이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를 접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어느 누가 힘이 있어 하나

님의 마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의 간구로 인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의 간구로 인해 바뀌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크고 두려운 것이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에 변화가 생깁니다. 더 큰 형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작은 형벌로 바뀌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그 형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

[신 10: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신 10:2]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신 10:3] 내가 싯딤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신 10:4]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신 10:5]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궤를 하나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첫번째 두 돌판은 깨지고 말았으니 두번째 주신 두 돌판은 나무궤에 고이 간직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무궤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모세는 첫번째 시내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과 40일을 동행하였습니다. 모세는 물과 음식을 전혀

입대지 않은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 9:9]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가 억지로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금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의 정욕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분됩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러한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좇아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신 10:6]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아간에

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신 10:7]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욧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브에롯 브네야아간'은 '야칸의 아들들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에돔 족속의 땅 국경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모세라'는 '징벌'이라는 뜻이고 호르산 부근이며 이곳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굿고다'는 '갈라진 틈'이란 이며 가데스 바네아 근처의 '홀하깃갓'(민 33:33)과 동일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욧바다'는 '상쾌함'이란 뜻이며 에시온게벨에서 북방으로 21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시내가 많은 지역여서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 10:8] 그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

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언약궤를 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레위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직책을 두셨습니다. 혼자서 일하지 못하게 하시고 일을 분담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전 12: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전 12: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 직책이 있지만 서로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고전 11: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분열되고 깨지는 이유는 이러한 질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능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적으로 일을 하게 함으로 조화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신 10:9]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신 10:10]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 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아무런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12지파 중 다른 형제들은 세상의 분깃을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는 단순히 기거하는 정도의 성읍만 기업으로 물려 받았을 뿐 세상적인 분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아무런 분깃을 주지 아

니하신 이유는 저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위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를 좇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썩어지고 문드러질 뿐입니다. 더럽고 추해서 이내 곧 상하고 썩어버릴 것들입니다.

[신 10:1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신 10: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 10:13]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홀로 느보산에 남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 34:5]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신 34:6]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대략 3개월쯤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성막조차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

만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신 것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했던 사건은 출애굽한지 40년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남겨놓은 상태에서 모세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불순종의 사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만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잘못의 전부였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때린 댓가로 그는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순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불순종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해 백성을 인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불만할 때에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경험을 이전에 한번 가졌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런 일이 있었

습니다. 그때는 출애굽한지 불과 2-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셨고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출 17: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물이 없는 상황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르비딤의 사건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 약간 달랐을 뿐입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반석을 명하여"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언뜻 보면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모세가 헷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석을 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습니다. 르비딤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치

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더 대단하였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바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느보산에 남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물이 없이 고난받을 때 반석에서 물을 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신 34: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백성들에게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운도 쇠하지 않는 건강한 모세를 서둘러 죽게 하셨습니다.

"[신 34: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 34: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빨리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생이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였던 지도자가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이슬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순응하였습니다. 죽음을 달갑게 맞이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말을 들으면 약간은 서운한 것도 있고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 3: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신 3: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삼고 깨끗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신 34: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의지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입니다. 모세는 르비딤 사건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모세에게 르비딤 사건이 없었더라면 불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을 것이고 신중하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비딤 사건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르비딤 식으로 사역을 행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신 10: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 10: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 10: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말라
[신 10: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 10: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상 중 하 3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층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두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하늘을 말하고 세번째 가장 높은 하늘은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후 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셋째 하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사도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여러차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언급이 씌여져 있는데 이는 모두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맘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맘대로 혹사하거나 그릇되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

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 14:15]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신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신 1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 10:21]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신 10:22]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칠십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

[신 11:1]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 11:2]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신 11:3]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신 11:4]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신 11:5]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신 11:6]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신 11:7]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에게 행하신 재앙

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 물 속에 진멸시키신 일들과 광야에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를 향해 대적하여 반기를 들었던 고라 일당들을 땅을 벌려 그 속에 집어 넣으신 놀라운 일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마고가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6절)는 고라 일당의 반역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일당이 어떻게 반역했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Korah)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온이 250인의 족장과 결탁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가족과 재산이 모두 땅 속에 삼키워졌던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진멸하시고 백성을 먹여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원

수를 진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신 11: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신 11: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축복받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수를 진멸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장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 11:1]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는 <미쉬메레트>인데 이는 <솨마르>(지키

다, 파수하다, 준수하다)에서 파생된 말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말합니다. 이것은 각종 절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 11:10]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신 11:11]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신 11: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떤 땅은 홍해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강까지의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지금의 이스라엘 지경 외에는 다른 지역의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땅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약간 있지만 그 땅은 모세가 죽기 전에 점령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쟁취했던 땅은 고작 가나안 지역의 땅 정도뿐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유브라데강까지의 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11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 밑으로 빠져버리는 석회암 덩어리입니다.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며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땅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의 물을 논과 밭에 끌어드리는 관개시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물통으로 운반하기도 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발로 물대기'란 일종의 수차와

같이 발을 이용해서 수로의 물을 농경기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 11:13]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신 11:14]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 11:15]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금새 땅에 물이 없어 농사짓는데 매우 힘든 땅입니다. 더군다나 1년 중 5~6개월 정도(4월~9월)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오랜 건기 기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매우 힘든 기후입니다. 다행히 늦은비와 이른비가 있어서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지면 10월~11월 사이에 내리는 이른비는 그 양이 매우 적어서 겨우 건기동안 바짝 말라있는 땅을 달래주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3월~4월경에 내리는 늦은비와 1월~2월경에 내리는 겨울비를 통해 농사를 짓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14절)라고 기록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매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심지어 농사까지도 세세하게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에는 심각할 정도로 강우량이 적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년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강우량이 적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신 11: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므로
[신 11: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

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며 누구든지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늘의 문이 닫히고 말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는 사람의 경우엔 우상숭배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부모나 조상이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자손 삼사 대까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

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 11:18]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 11:19]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 11:20]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신 11:21]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거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을 정도로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칠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육간에 새길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4대 구절들을 양피지에 그대로 베껴서 그것을 경문갑(經文匣, Phylactery)이라고 하는 성구함에 담아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는 경문(經文)의 풍습으로 발전시켰다 습니다.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6: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 6: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 6: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 6: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신 6:1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 6:19]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 6: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 6: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

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 13: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출 13: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 13: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출 13: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 13: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 13: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출 13: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 13: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 13: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출 13:12] 너는 태에

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출 13: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출 13:14]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출 13:15]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 13:16]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또한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나 바깥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유명한 말들을 적은 글을 붙이는 것이 유행했던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적어서 붙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부적붙이는 행위도 고대 근동지역에서 행하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흘러 전해져 온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11:22]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신 11:23]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신 11:24]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신 11:25]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의 것들을 잘 지킨다면 저들의 밟는 땅이 모두 저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

2.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3.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 한다.
4.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

만일 우리가 위의 조건들을 온전히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신 11:26]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 11:27]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신 11:28]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만 받는 사람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저주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는 '율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복과 저주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과 저주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직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율법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구원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이 생의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것입니다. 이 생에는 구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 이후의 생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게 하지만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힘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자 한다면 율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다고 상급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십계명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율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할 4개의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할 6개 율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계명, 규례, 율례, 법도'라는 말의 종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신 11: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 11:30]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 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레 상수리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신 11:31]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신 11:32]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리심산에 올라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은 축복을 받을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 저주받을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을 받을 율법과 저주를 받을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받을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 대신에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배우자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저주가 배우자에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한대로 행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그리심 산은 숲이 우거지고 매우 풍성한 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에발산은 황량하며 벌거벗은 산이 되었습니다. 두 산 모두 세겜 성읍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지만 무엇을 선포했느냐에따라 그 산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

[신 12:1]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신 12:2] 너희가 쫓아 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신 12:3]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신 12:4]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는 곳을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조각된 신상들을 찍어 멸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

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학업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신 12:5]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 12:6]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신 12:7]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 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출 23: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지켰으며 하나님께 번제를 비롯한 여러 제사를 드렸으며 십일조와 첫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 12:8]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신 12:9]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신 12:10]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신 12: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신 12:12]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찌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각자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옳다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대로 행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11절).

우리의 처한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집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그곳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곳은 축복받은 땅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가족과 함께 나아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심지어 하인까지도 모두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였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12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써 마땅히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 12:13]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신 12:14]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며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

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장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히 8: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자 원하시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 장소라고해서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호화찬란하고 웅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과 같은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가 거룩하냐 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위해 거룩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레위인을 거

룩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해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자로 삼으셨으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신 12:15]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무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과 같이 먹으려니와
[신 12:16]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생명'으로 여기셨습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죄에 속한다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진다 하셨습니다.

"[레 17: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신 12:17]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신 12:18]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

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신 12:19] 너는 삼가서 네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소산물의 십일조와 짐승의 초태생과 서원예물과 낙헌예물과 거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가치를 계산할 때 전체 수입의 60% 이상이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놀라운 헌신을 드리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을 먹이셨습니다. 레위인에게는 그 어떠한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굶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주지 않으시면 굶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산이며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19절)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위해 선을 베푼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레위인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보다 올바른 뜻은, 비록 선지자가 선지자 같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가 목회자같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목회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목회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제가 형제같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형제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형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비록 배우자가 배우자 같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배우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배우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 12: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신 12:21]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신 12:22]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무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진중에서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 여호와의 성막 앞으로 끌고 와서 화목제물로 드린 후에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성막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도살이 제사와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레 17:3]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 중에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중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레 17:4]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앙 성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식용으로 고기를 먹고자 할 때마다 먼 길을 걸어 성소로 가축을 끌고 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삶의 형편과 연약함을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에 쓰인 히브리어는 '확장하다'<라하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영토가 광활하게 넓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에 쓰인 단어는 '열망하다'<아바>입니다. 이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식욕과 본능적인 갈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정당한 기쁨과 필요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필요를 따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각 성에서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에는 제사의 정결 예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성소에서 드

려지는 제물은 율법적으로 '정한 자'만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식용 고기는 '부정한 자'라도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정결한 짐승이지만 제물로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의식과 무관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도 식용으로 잡을 때는 동일한 자유가 허용된 것입니다.

[신 12:23]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신12:24]너는그것을먹지말고물같이땅에쏟으라
[신 12:25]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식용 고기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금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23절 상)는 명령이었습니다.

'크게 삼가서'에 쓰인 단어는 '굳게 붙잡다'<하자크>입니다. 이는 결사적으로 스스로를 단속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피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피를 엄금하신 이유는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23절 하)라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하며, 생명의 주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고기를 식물로 취할 권한은 위임받았지만, 생명 자체의 주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지 않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24절)고 명하신 것은, 취한 생명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신앙 고백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경외하는 행위였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잔인하게 피째 삼키는 이방 우상숭배자들의 가증한 풍습을 철저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피의 규례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매우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죄를 속하는 거룩한 용도로만 구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

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제단에 뿌려진 흠 없는 짐승의 피는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자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은 오직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구약의 백성들이 생명의 상징인 짐승의 피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구별하였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25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은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짐승의 피를 쏟아내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한 구별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의로 여기시며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신 12:26]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신 12:27]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사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일상의 식용 고기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할 '성물'과 '서원물'을 철저히 구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각 성에서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먹는 일상생활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되,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거룩한 제물과 십일조와 서원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 성소로 가지고 와서 제단을 통해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물의 고기와 피는 온전히 여호와의 단에 드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표해야 했고, 화목제 희생의 피는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제사 예식의 규례를 따라 거룩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일상의 자유'와 '예배의 거룩한 질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물질을 주시고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와 구별된 헌신을 침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된 제물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의 질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 12:28]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신 12: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신 12:30]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신 12:31]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모세는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30절)고 명하였습니다. '탐구한다'는 말은 <다라쉬>로써 '예배하기 위해 무언가를 따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의해 탐구하다가 결국은 그것에 매료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가증스러운 일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자녀까지 불태어 그 신들에게 드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민족신이었던 '몰렉(Molech)'은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몰렉(또는 밀곰)에게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하 23:10]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신들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음란한 행위를 자행하기도 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매우 가증스러운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행위는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의식을 집행하는 더러운 의식이 자행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음란한 짓을 통해 자신들의 신에게 의식을 집행하는 가증스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의식은 세상 곳곳에 뿌리내려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배우자를 학대하는 가증스런 의식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못된 성품을 이용하여 저들로 하여금 가족을 학대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같은 가정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

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더러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그 옛날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바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을 방치하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신을 섬길 때 우리의 나 자신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 12:3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명하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는 자는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첨가하거나 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성경시대의 단어가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말씀이 옛날에 사용된 말씀이라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옛적에 사용된 단어를 현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겠으나 수정해서는 안 될 것들도 함부로 수정해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사람들은 십일조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십일조의 계명이 구약시대의 것이니 더 이상 현대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일조를 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십일조는 옛날 계명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영원한 계명입니다.

십일조에 대한 그릇된 해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의 재앙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이뤄지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게 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본질을 바꾸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듯 함부로 가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계 22: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 22: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했다고 시인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십시오. 지키지 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하지 마십시오. 십일조를 내기 싫으면 내기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 십일조를 구약시대때나 지켰던 오래된 계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당키 어려운 형벌인 것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

[신 13: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신 13:2]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신 13:3]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 13:4]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나 꿈 꾸는 자를 조심하라 경고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선지자를 뜻합니다. 거짓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짓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가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

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거짓의 영을 구별하라고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꿈 꾸는 자'는 <홀렘 할롬>인데 이 역시 거짓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꿈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받은 꿈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거짓선지자와 꿈 꾸는 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능력임을 깨닫지 못하고서 저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다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선지자나 거짓 꿈 꾸는 자의 말을 듣고서 현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3절).

[신 13:5]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거짓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를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거짓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거짓선지자나 거짓 꿈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케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만일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 사람은 거짓선지자요 거짓 꿈쟁이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꿈 꾸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게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꿈 꾸는 자를 죽임으로써 악을 제하라 명하셨습니다. "악을 제할지니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제하다'의 말이 <바아르>인데 이는 '불을 붙이다'란 뜻입니다.

[신 13:6]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신 13:7] 곧 네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신 13:8]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신 13:9] 너는 용서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모세는 비록 형제자매나 배우자나 친구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거든 저들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9절)고까지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오히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명령이 다소 당신에게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혹은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왔던 기독교와 사뭇 다른 내용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섬겨왔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저들의 최후는 죽음뿐입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기독교를 버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자

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당신이 해야 할 예의이며 도리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잔인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행동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그 때 비로소 당신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신 13:10]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신 13:11]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 가정에 오직 하나님만 두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하나님만 섬기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

니다. 만일 당신이 가장이라면 그 일을 인생 최대의 과제로 삼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녀라면 당신의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형제자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입니다.

[신 13: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신 13:13]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신 13:14]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신 13:15]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신 13:16]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신 13:17]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

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네 수효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신 13:18]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 같이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한 자를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저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모든 자 또한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생명을 취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 또한 진멸시키라 명하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멸당하는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진멸당하는 자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해서도 안 될 것이며 저들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 14장 ==========

[신 14: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신 14:2]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행위는 그 당시 이교도들이 장례 때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신들을 달래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자해행위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눈썹 사이의 이마의 털을 밀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행위인데 털을 민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금지사항이었습니다. 눈썹 사이 이마의 털을 미는 것은 대머리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머리는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자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죽은 자를 위해 살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를 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레 19:28]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 14:3]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신 14:4]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신 14:5]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럼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
[신 14:6]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신 14:7]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신 14:8]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신 14:9]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신 14:10]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신 14:11]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신 14:12]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신 14:13]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신 14:14] 까마귀 종류와
[신 14:15]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신 14:16]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신 14:17]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신 14:18]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신 14:19]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신 14:20]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신 14:2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하고 거룩한 짐승이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쪽발도 되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이 이에 해당됩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

희가 먹을 것이니라"(6절) 소나 양과 염소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4절)

하나님은 소와 양과 염소 외에 사슴, 노루, 불그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뿔이 긴 사슴, 산양 또한 정결한 짐승으로 삼으셨습니다(5절). '불그스름한 사슴'은 '꽃사슴'을 뜻합니다. '볼기 흰 노루'는 염소와 비슷하지만 몸이 약간 크고 살찐 '영양'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짐승에는 낙타, 토끼, 사반, 돼지가 있습니다(7-8절). 낙타와 토끼와 사반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기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굽이 갈라지면서도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신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유해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더러운 짐승을 먹을 경우에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위생처

리가 좋기 때문에 돼지같은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물 속에 사는 물고기의 경우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또한 위생적인 것과 비위생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위생처리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정하다 여긴 물고기도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지와 물 속의 짐승 뿐만 아니라 공중의 나는 새까지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죽은 사체는 만지지도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될 때에 사체를 통해 더러운 병균이 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꼼꼼이 다루셨습니다.

[신 14:22]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신 14:23]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 14: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신 14: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신 14:26]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 14:27]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곳에 언급된 십일조는 '제2의 십일조'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의 십일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제2의 십일조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풍성한 축제를 갖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성막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막이 사라진 후에는 성전을 의미했고 성전마저 없어질 때는 예루살렘을 상징했습니다.

제2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떠한 소산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십일조를 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엔 제2의 십일조에 해당되는 소출을 팔아 돈을 가지고서 성소에 나아가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여 함께 가족들과 즐거운 축제를 갖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성전이 많이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의 더럽힘을 막기 위해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마 21: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행해지는 성전 더럽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건물을 세우고 있으나 그러한 과정에서 자행되는 악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 14:28]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신 14: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축복을 주시리라

모세는 매 삼 년 끝에 소산의 십분의 일을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그것으로 가난한 자와 레위인을 도우라 명하였습니다. 이는 '제3의 십일조'를 말합니다. 또 다시 십일조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 3년과 제 6년 때에는 '제2의 십일조'가 '제3의 십일조'로 변경되어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일조를 통해 가난한 자를 먹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일조를 통해 레위인을 먹이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제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구제사역에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미자립교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립할 수 없는 형편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생활비조차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만일 지금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구제사역을 가장 우선 사역으로 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사역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미자립교회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미자립교회도 가난한 형편이지만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여진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구제사역을 살펴볼 때 우리가 행할 구제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밀린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셨으며 전세값도 돕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영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저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구제사역의 전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처럼 구제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돈이 없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돈이 없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겠지만 큰 교회에서도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은 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영적인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상처입은 자를 치유하시고 질병있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행하신 구제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질병자가 많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사역이며 주님께서 행하신 구제사역입니다.

상처입은 자들을 돌보고 질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생활비를 대주고 월세금을 지불해주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한데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마저 없다면 세상보다 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구 제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삼았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 중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기원후 70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히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서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구제는 변함없이 행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구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고 말하면서 구제는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구제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 중 하나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딤전 5:10).
또한 바울은 구제를 행할 때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

구제의 효력

이방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는 그가 구제를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방문한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행 10:31)라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행함을 보시고 고넬료를 구원하셨다고 말했습

니다. 이처럼 구제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구제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였기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행 9:36).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 12:33)고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풍성히 쌓이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고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 28:27)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치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운동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백성을 구제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기본 사역을 따를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근간 사역은 예배, 선교와 구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선교를 통해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구제함으로 주님

의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제하심에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구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행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제는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구제하는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보다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면 하나님도 감추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 구제의 손길을 내밀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주님은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고 구제의

축복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후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

[신 15:1]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신 15: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신 15: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신 15:4]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 15: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 15: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신 15: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

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신 15: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면제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7년을 주기로 하여 매 7년째마다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매 칠 년 끝'이라고 표현하였지만 7년째를 의미합니다. 보통적으로 이를 '안식년'(安息年, the Sabbatical year)이라고 말하며 안식년 때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냥 묵혀둡니다.

보통적으로 안식년이 되면 채무에 대해서도 안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탕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식년에만 빚진 채무를 탕감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를 무조건 안식년이 될 때에 탕감해 줘야 한다면 아무도 돈을 꾸어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제의 규제가 안식년에만 채무 받는 것을 금하는 것일수도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면제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의 규제가 가져다 주는 중요한 의미는 꾼 돈을 갚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누군가 빚을

진 자를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재물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돈을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형태의 속박도 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6절)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형태로 해석한다면 이는 재물로 인해 속박받거나 억압받는 형태의 삶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 15:9]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칠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신 15: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시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15: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은 면제의 규제를 주실 때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9절) 명하셨습니다. '

악한 생각'은 단순히 악한 생각이라기 보다는 옳은 생각에서 벗어난 죄악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자신의 받을 채무를 받지 못할까봐 염려하여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은 누가 핍박을 하지 않더라도 궁핍한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 악한 생각을 품고 궁핍한 사람에게 눈치를 줄 때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 일을 하소연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신 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신 15: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신 15: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신 15: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하나님은 면제의 규제를 사람에게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 히브리 노예를 샀

을 때 안식년이 되면 저들을 자유롭게 노예에서 해방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안식년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간입니다. 만일 어떤 노예를 샀다면 6년 동안 노예를 부리다가 7년 째 될 때에 노예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풀어줄 때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오히려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이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이며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뤄져야만 합니다.

[신 15: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신 15:17]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신 15:18] 그가 육 년 동안에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만일 노예가 안식년이 되어 자유롭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함께 거하고 싶어할 때에는 재판장에게 데려가 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집의 대문이나 기둥에다 노예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내었습니다.

"[출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종은 영원한 그 집의 귀속노예가 되었음을 확증되게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보통적으로 귀걸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에 구멍을 내는 것은 그리 고통스럽거나 잔인한 행동은 아닙니다. 주인은 귀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했던 송곳을 대문이나 문설주에 꽂아 놓음으로써 그 종으로 하여금 영원한 그 집의 귀속노예임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은 여종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17절). 여종의 경우엔 남자와 다른 것이 보통적으로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집주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출 21: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출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출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출 21: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출 21: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신 15:19]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신 15:20]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신 15: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신 15:22]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신 15: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 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닫게 되면 초태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십일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의 십분의 일만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고 노동 착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고 싶지 않아서 상품의 가치가 없는 가축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증한 죄악으로 여기시고 흠있거나 더러운 짐승을 바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것은 흠있고 더러운 집승을 바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을 바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억지로 예물을 바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억지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기쁨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초태생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포함하여 사람까지도 모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헤아린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된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습니다(민 3:42-43). 그러나 레위인의 1개월 이상된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민 3:39). 레위인을 대속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273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수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케 하셨습니다. 한 명당 속전은 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은

속전세를 지불하여 그것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 "[민 3: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칠십삼 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민 3:47] 매명에 오 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3:48]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출13:2-3). 그런데 이스라엘 첫아들과 첫태생 대신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의 첫태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소유로 삼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으나 그들로 성막과 제사 사역을 감당하기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선택하여 모든 제사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녀 중 초태생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초태생된 자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

을 취하였느니라"

이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여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물을 취할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은 많이 퇴색되어 갔으며 많은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초태생 대속제물로 삼음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목회자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초태생 대속제물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같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모두가 똑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태생을 취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태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초태생이 있으며 우리의 재물 중에도 초태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소산의 십일조도 함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처음 난 것과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오래도록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에 솔로몬 이후에 그토록 큰 기쁨이 없었는데 왕이 백성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명하자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 헌금을 쌓아 올리는데만 자그마치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대하 31:7).

"[대하 31: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도 소산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 하나님은 예니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태생과 십일조는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금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거제물을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

> 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들게 합니다.

신명기 16장 ==========

[신 16:1] 아빕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신 16:2]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1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가운데 거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 16:3]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칠 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 16:4] 그 칠 일 동안에는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

이며
[신 16:5]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신 16: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드리고
[신 16: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신 16:8] 너는 육 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칠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 이후에 곧 바로 1주일 동안 무교절을 갖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가족끼리 지내는 것이지만 무교절은 1주일 동안 모든 백성이 함께 성전에 나아가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주셨음을 기념하며 축제를 여는 절기입니다.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없는 떡은 누룩있는 일반 떡에 비해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누룩으로 떡을 만들 시간조차 없이 매우 급하게 빠져 나왔음을 생각케 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이처럼 급하게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 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급하게 구출해 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급하게 구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였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환난의 날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빠르게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아주 빠르게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롬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신 16:9] 칠 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 주를 계수하여
[신 16: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 16: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칠칠절을 지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칠칠절은 무교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때에 지켜졌습니다. 7주 x 7일 = 49일. 이렇게 49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날인 50일 째에 지켜졌다고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름하였습니다. 이 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밀을 추수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주로 행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로 목축업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목축업을 행하였고 야곱도 목축업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부터서 목축업과 함께 농경업도 병행케 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땅이 없는 백성처럼 짐승에게 먹일 물을 찾아 이곳저곳을 방황했으며 짐승에게 먹을 목초를 따라 이동하였지만 농경업이 시작될 때부터서는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인생입니다.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분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을 다시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은 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상숭배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분노하셔서 재앙까지 내리실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은 고난의 인생이 끝이 나고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

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끝이 나고 복된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오순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축복이 임하였던 때도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오순절입니다.

[신 16: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칠 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신 16: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신 16: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칠 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

성으로 하여금 광야생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풍성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초막절 절기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가운데 슬픔으로 잠겨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케 하시고 구원하시며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야 할 것입니다.

[신 16:16] 너의 중 모든 남자는 일 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신 16: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고 명하셨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16절)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하며 살아 있는 영적예배입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영적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지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들 것이라고 말씀

하시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각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간단한 원리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계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일조가 아까워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예물이 아까워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밀린 헌금을 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은 결코 헌금을 밀리지 않습니다. 내야 할 그 때에 내며 내야 할 것보다 더 풍성하게 드립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계시며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신 16:1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신 16:19]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

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 16:20]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신 16:21]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신 16:22]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거하는 모든 성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어서 그들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왕정시대 때에는 각 성읍마다 7명의 재판과능로 구성된 재판정을 설치하였으며 120세대 이상되는 성읍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법정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산헤드린)를 설치하였고 이곳에서만 살인형에 속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지 말라 하셨는데 뇌물로 인해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운 판단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에 쓰인 짐승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염소도 가능했습니다.

> "[출 12: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렇게 준비된 어린 양이나 염소는 일년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무 흠이 없는 건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만일 가족의 수가 적으면 적은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어느 집에서 짐승을 잡도록 했습니다.

> "[출 12: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또한 이방사람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군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출 12: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출 12: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출 12:45] 거류인과 타국 품군은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짐승의 피를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것에 피를 묻혀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로 아무도 집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규례에 한 가지 포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출 12: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찌며"

하나님께서 짐승의 뼈를 꺾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 19: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요 19: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 19: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니라 [요 19: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이라"

유월절 예비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신 날을 가리켜 '예비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비일'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치 유월절 전 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일'은 유월절 전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 봐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행하셨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마 26:17). 이 유월절은 니산월(종교력 1월, 민간력 7월) 14일에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은 무교절 중(15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동안 행해졌지만(14일) 무교절은 유월절(14일)부터 1주일간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교절 첫 날이 안식일(금요일 저녁부터)이었기 때문에 '예비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요청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죄인의 숨을 거두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다리를 꺾기 이전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1.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열번째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생각할 때 다음의 두가지 절기를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은 종교력의 1월 14일(민간력의 7월)에 지켜졌으며, 무교절은 14일부터 1주일간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후 첫번째 안식일 다음날에는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2.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오순'이라는 뜻은 50을 의미합니

다. 한 주가 7일로 구성되어 있고 오순절은 모두 일곱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x7=49 다음날인 50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은 오순절이 밀추수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강림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오순절 절기때였습니다.

3.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생활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의 7월(민간력의 1월) 15일부터 1주간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켜집니다.
단순히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포도나 무화과열매의 결실이 풍성한 절기여서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기는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절기이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는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께서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이라는 설교를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월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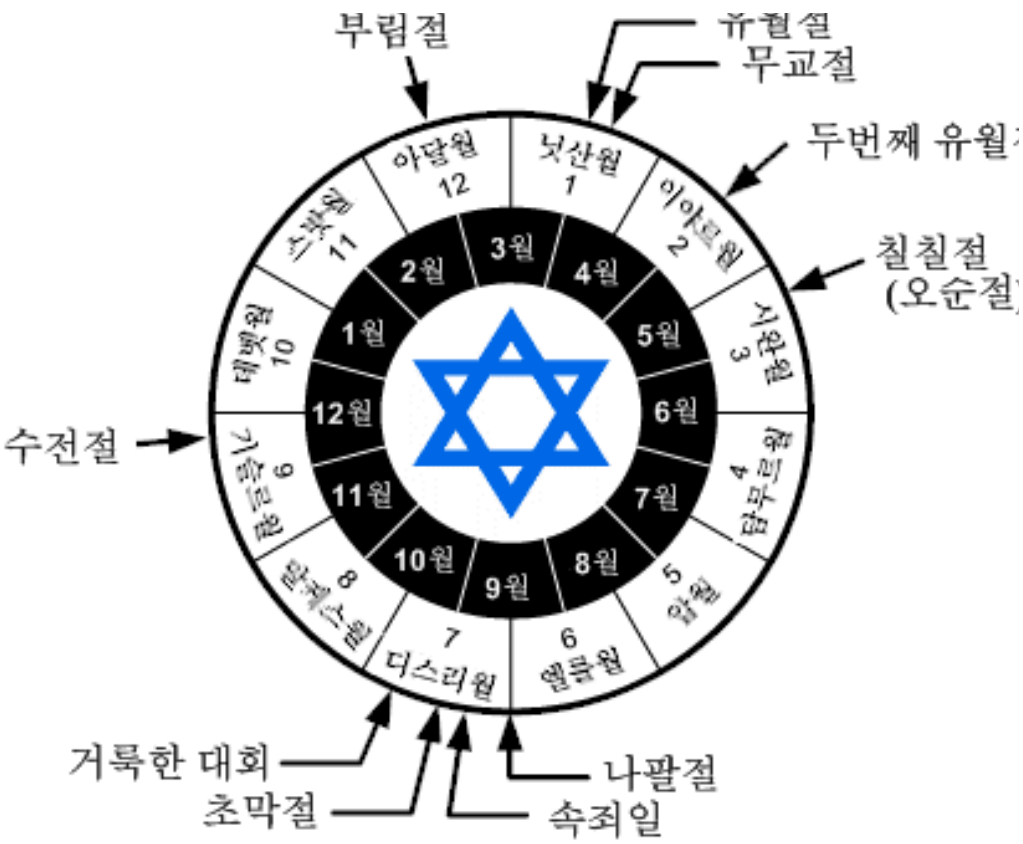
*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였다. 민간력(농경과 목축 및 각종 일상사를 기준)과 종교력 (출애굽을 기념하여 그 달을 신년으로 설정)각 달의 이름은 원래 가나안식 명칭이었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식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 현재 전해지는 가나안식 명칭은 아빕(1), 시브(2), 에다님(7), 불(8) 등 4달의 명칭만 남아 있다. 종교력 1월인 니산월은 원래 '아빕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시대 이후에 바벨론식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 유대력은 1년이 12개월로, 각 달은 평균29.5일로 구분되어 홀수 달은 30일, 짝수달은 29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년은 약 354일로 구성된다. 이런 이유로 매 19년을 주기로 1주기 때마다 7번씩

양력으로 3월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새 봄의 달인 '베달' 또는 '아달 세니'라는 제 13번째 달을 윤달로서 첨가시켰다. 1년마다 부족해지는 11일을 채워 3년마다 윤달을 넣어주는 것으로 양력과 음력을 맞추고 있습니다.

* 히브리력과 태양력의 관계는 대략 히브리력의 한달이 태양력의 보름에서 시작되어 다음 달 보름에 끝나는 즉 태양력의 15일이 히브리력으로는 초하루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무방하다.



신명기 17장 ==========

[신 17:1]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짐승을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짐승은 건강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짐승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값이 떨어진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는 억지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 17: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신 17:3]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신 17:4]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 네가 듣거

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신 17:5]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신 17:6]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 17:7]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형벌은 사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에서는 단순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발각될 때에 그를 성문으로 끌어냅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였으며 재판이 이뤄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를 통해 그 사람의 죄를 물었습니다. 만일 두 세 증인이 없으면 죄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형벌을 당할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신 17:8] 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신 17:9]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는 민사 사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 백성들 간에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 나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있는 레위 사람 제

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초지종을 고하여 저들로부터 판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적인 판결은 다소 혼적이며 육적인 판결이지만 하나님의 판결방법은 다소 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할 때에 그 판결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방법으로 재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전 6: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 6: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전 6: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전 6: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민사상의 문제가 벌어졌

을 때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악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만 하기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게 잘못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당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매우 큰 죄로 적용되는 것입

니다.

"[마 6: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신 17:10]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신 17: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신 17:12] 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신 17:13]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던 좋던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말만 순종하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 간의 민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떨어지면 무조건적으로 그 판결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에 불순종하거나 불이행할 경우엔 그 즉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12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사형에 처할 정도의 큰 죄로 여겼으며 이러한 자를 죽여서까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악에 빠져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판결은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판결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보다 더 우위에 놓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와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이라 여길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

로 순종하며 따를 때 비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7명 또는 23명의 재판장으로 구성된 지방 재판정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장로였으며 각 성읍마다 이러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 있는 상급 재판정이 있어서 각 성읍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에 대해 최고 의결기간인 예루살렘 중앙 성전 재판정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발전에서 산헤드린이 된 것입니다.

[신 17: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신 17:15]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신 17:16]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고 싶어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사사기 400년을 지난 후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기를 원하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삼상 8: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비록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애굽으로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버렸으며 세상과 같은 타락된 장소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문제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기보다는 이것쯤이야 하는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과거의 삶입니다. 비록 애굽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고 힘든 살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힘들었던 과거가 그리움으로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과거에 푹 빠져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과거에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은 늪과 같아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서 송두리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과거나 미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미래의 삶을 꿈꾸는 것이나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것은 모두 현재의 삶을 망치게 합니다.

[신 17:17]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 17: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신 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 17: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왕에게 몇가지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중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 행할 때 그의 왕위가 장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왕위기간을 살펴보면 어떤 왕은 매우 길게 통치했지만 또 어떤 왕은 매우 짧았습니다.

저들의 통치기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왕은 그 통치 기간이 길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왕은 그 통치기간이 짧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이 장수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수명이 짧으며 고난과 역경의 삶이 지속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주전 55년 경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가비나우스는 유대 땅을 다섯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공회를 갖게 했습니다. 그 때부터 산헤드린이 이스라엘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산헤드린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에 의해 만들어진 전 세계 모든 족속의 수가 71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족속의 수가 70으로도 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수는 70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십인 제자를 세워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를 따

로 세워 복음을 증거케 한 것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숫자가 70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 시대때 세워졌던 장로의 숫자가 70명이기때문에(출 24:1) 70명으로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칠십인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번역에 참여한 대표자자의 수가 71명의 학자라는 말도 있고 70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듯이 70명과 71명의 구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헤드린의 공회원 수가 70명인데 의장인 대제사장이 더해져서 71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산헤드린은 대공회와 공회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대공회였으며 지방에 공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대 공회에는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저들의 구성비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사두개파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헤롯대왕 시대에는 사두개파와 귀족층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등용하다보니 바리새파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만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결정된 사항은 누구도 어겨

서는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형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로마 총독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사형집행권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독자적인 행정법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경비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권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산헤드린 공회도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8장 ==========

[신 18:1]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신 18:2]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레위지파를 선별하여 세웠습니다. 레위지파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한 지파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선별하시고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세상적인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파사람들은 마음대로 땅을 구입할 수도 있고 경작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은 오직 저들에게 주어진 성읍에 거하면서 숙박하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음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레위지파 사람이라고해서 모든 레위지파인들이

성막에 나아가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레위인들의 경우엔 저들에게 분깃으로 주어진 48개의 성읍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48개의 성읍은 모두 다른 11지파들이 취한 기업중에서 떼어준 것이었으며 성읍은 판매가 가능했지만 저들의 성읍 주변의 바깥 땅은 팔면 안 되었습니다.

"[레 25:34]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신 18:3]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신 18:4]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깍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신 18:5]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신 18:6]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신 18:7]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신 18:8]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 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나 아론후손인 제사장들은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비해 좋은 환경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른 형제 지파 사람들에게 비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삶이 레위지파 사람들과 같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목회자 중에서는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 가정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신다 하셨으니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레위지파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다소 소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 10: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 10: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 18: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 18:10]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 18: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신 18:12]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 내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며 가까이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에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우상숭배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가까이 하며 저들을 용납하는 행위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몰렉(Molech) 종교의 의식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불에 던져 죽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 18:21]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점쟁이'는 점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점쟁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입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는 원래 '구름을 관측하는 자'라는 뜻인데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자 혹은 하늘의 징조를 해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술하는 자'는 여러가지 마술을 부려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입니다.
'무당'은 '속삭이다', '흐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주문을 외우며 길흉을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진언자'는 무당과 비슷하나 사람에게 마법을 건다는 점에서 무당과 구별됩니다.
'신접자'는 점을 치기 위해 죽은 사람의 영을 부리거나 죽은 사람의 영에게 직접 물어보는 자를 말하는데 일명 영매자라고도 합니다.
'박수'는 원래 남자 무당을 뜻하지만 점쟁이나 마술사를 가르키기도 합니다.
'초혼자'는 죽은 자를 불러내어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자로 신접자와 비슷합니다.

[신 18: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신 18: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 18: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신 18: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신 18: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

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신 18:19]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하여 삼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호렙산에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듣기를 두려워하였고 선지자를 세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출 20: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18절).

[신 18:20]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

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신 18:21]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신 18:22]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만일 어떤 대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신의 뜻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언자가 들려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서 '증험'과 '성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험'이나 '성취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대언자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증험'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말의 의미는 '~이 일어나다', '~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버전들 대부분이 이 단어를 'happen', 'take place'와 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서 이 또한 '어떠한 변화'를 의미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에 따라 즉각적인 변화도 일어나기도 하고 좀 늦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끊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 증세가 갑자기 끊어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늘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취함'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보>입니다. 이 단어는 '들어가고 나오다'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버전 대부분은 이 단어를 'come true', 'come pass'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중 가장 중요한 반응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거나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 드리게 됩니다.

[신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 18: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신 18: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신 18: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신 18:19]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하여 삼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호렙산에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듣기를 두려워하였고 선지자를 세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출 20: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18절).

[신 18:20]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신 18:21]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신 18:22]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만일 어떤 대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신의 뜻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언자가 들려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서 '증험'과 '성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험'이나 '성취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대언자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증험'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말의 의미는 '~이 일어나다', '~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버전들 대부분이 이 단어를 'happen', 'take place'와 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서 이 또한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에 따라 즉각적인 변화도 일어나기도 하고 좀 늦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끊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 증세가 갑자기 끊어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늘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

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취함'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보>입니다. 이 단어는 '들어가고 나오다'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버전 대부분은 이 단어를 'come true', 'come pass'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중 가장 중요한 반응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거나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 드리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

[신 19: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신 19: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신 19: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 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신 19: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신 19: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신 19: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신 19: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은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일반 성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성읍의 사면 들은 모두 2000규빗의 길이에 해당되었습니다. 2000규빗은 1000m(1km)에 해당되는 길이었습니다.

"[민 35: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민 35: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도피성은 모두 6개로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골고루 배포되었습니다.

"[민 35: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을 임시적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의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거할 수 있었으며

정당한 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거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각각 세 개씩 모두 6개의 도피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곳에서든지 손쉽고 빨리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손쉽고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 19: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신 19:9]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

을 더하여
[신 19: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 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먼저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세 개를 더 세우라 명하셨씁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도피성이 있게 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은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일반 성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성읍의 사면 들은 모두 2000규빗의 길이에 해당되었습니다. 2000규빗은 1000m(1km)에 해당되는 길이었습니다.

"[민 35: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민 35: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도피성은 모두 6개로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골고루 배포되었습니다.

"[민 35: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을 임시적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의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거할 수 있었으며 정당한 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거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각각 세 개씩 모두 6개의 도피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곳에서든지 손쉽고 빨리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손쉽고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 19:11]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신 19: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신 19: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무리 도피성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고한 죄의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게 하였을 경우엔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신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고한 자에게 피를 흘리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죄없는 자를 핍박하거나 깔보는 행위 또한 무고한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

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행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신 19: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신 19: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 19: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신 19: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신 19: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경계표는 토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전답이나 택지의 구획이

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표시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토지등기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는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엄히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은 타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십계명을 8번째 계명이 타인의 재산에 대해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 19: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 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신 19: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 19: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며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을 때 피해받는 정도까지만 형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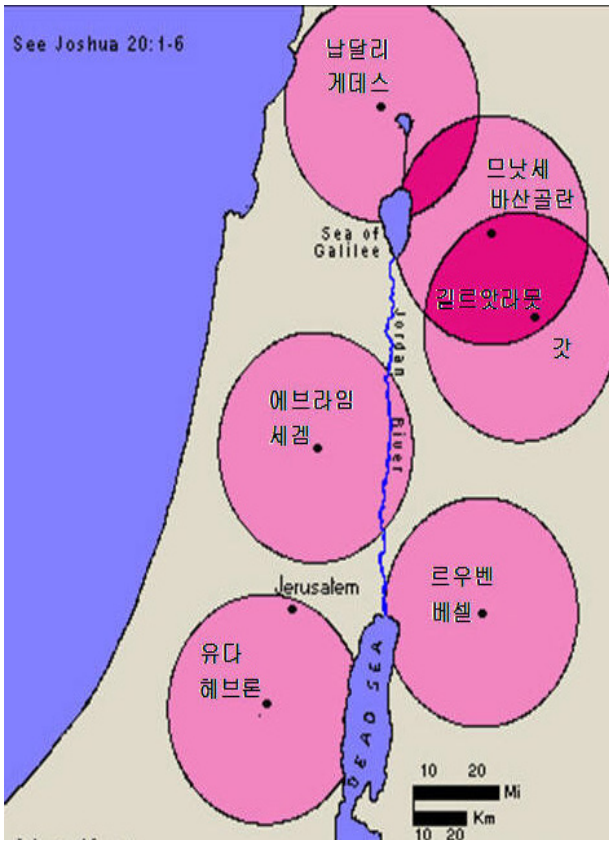
도피성

도피성이란?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같이 도피성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을 말하는데 이들이 회중 앞에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 35: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

어 가거든 [민 35: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민 35: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민 35:14] 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부족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원한을 갚기 위해 무차별 살육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도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

성을 허락하신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경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우연히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보지 못한채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민 35: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민 35: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지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은 사람이나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여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보아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원한으로 인해 손으로 쳐서 죽인 사람의 경우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민 35: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민 35: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민 35: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민 35: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도피성의 규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찾아 왔

을 때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그 사람의 범한 일에 대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이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 판결할 때 반드시 두 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다음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할만한 사람으로 판단이 될 때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들여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도피성에 거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면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을 스스로 벗어난 경우엔 더 이상 보호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법적 보호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도피성과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모두 3개씩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손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만일 도피성까

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빨리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신 19: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신 19: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잘 닦아 놓도

록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 "[신 19: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 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는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도 산 길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도 산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타국인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도피성을 벗어나면 생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 35: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수 20: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신 19: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신 19: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 19: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신 19: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신 19: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경계표는 토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전답이나 택지의 구획이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표시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토지등기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

문에 돌을 옮겨놓는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엄히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은 타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십계명을 8번째 계명이 타인의 재산에 대해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 19: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 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신 19: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 19: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며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을 때 피해받는 정도까지만 형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신명기 20장 ==========

[신 20:1]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 20:2]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신 20: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신 20:4]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과 싸울 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비록 대적의 수가 많고 저들의 무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며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대적과 싸울 때는 승

산이 확실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때 그 누구도 감히 멸망당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신 20:5]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신 20:6]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신 20:7]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신 20:8]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신 20:9]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대적과 싸우러 나갈 강력한 군사를 선별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나 유약한 자는 싸움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은 행여 약한 자들로 인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심입니

다.

하나님은 세상의 정욕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자를 사역자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사역자는 세상의 정욕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치유하는 자들입니다.

[신 20:10]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신 20:11]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신 20:12]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신 20: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신 20:14]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신 20:15]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신 20:1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신 20:17]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신 20:18]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일곱족속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성읍들에 대해서는 평화를 선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일곱족속에 한해서는 어린 아이까지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에 한해서는 조공을 받고서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화평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

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를 만나거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는 함께 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이기 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 우리가 깨끗치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하시려 하십니다.

[신 20:19]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래 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 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신 20:20]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성읍과 전쟁할 때에 과목을 작벌하

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과목이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려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선하고 보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

[신 2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신 21:2]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신 21:3]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신 21:4]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신 21: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피살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을 불러다가 의식을 집행케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불러다가 공평한 판결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내린 판결은 공평한 판결로 인정되었

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공평한 판결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시고 공평한 판결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교회 지도자는 공평한 판결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으니 최대한 공평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가 공평한 판결을 행하지 못할 때 이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어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신 21:6]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신 21:7]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신 21:8]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신 21:9]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성읍의 장로들은 피살된 시체에 대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7절)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자를 죄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편에 서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편이 아니라 죄인편입니다. 죄를 안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안지었어도 죄인이 될 수 있고 죄를 지었어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죄있다 여기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니라 하시고."

만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 21:10]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신 21:11]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신 21:12]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신 21:13]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일 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신 21:14]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과 싸워 포로로 얻은 자들 중 맘에 드는 여자를 취할 때에 절차를 따라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맘에 들지 않아 함께 살기 싫어할 때에 그녀를 마음대

로 가게 할 것이며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에게 선을 베풀 때에 그 행함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을 행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 21:15]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신 21:16]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신 21:17]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장자에게 다른 자녀에 비해 두 배의 몫으로 유산을 물려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장자가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

다.

"[창 49: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싫어하는 아내로부터 장자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장자에게 두 배의 몫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장자의 명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행위에 따라 장자의 명분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대상 5: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대상 5: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야곱의 12 아들 중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르우벤은 혈육의 장자였지만 요셉은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제치고 유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파 중 요

셉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이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지파보다 더 큰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 21:18]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신 21:19]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신 21: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신 21: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교육을 엄히 시키도록 명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치 않아서 방탕하며 술에 잠긴 삶을 살 때에 그를 성읍장로에게 고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돌에 맞아 죽도록 고발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녀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어

떠한 죄악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엄히 교육할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그들의 자녀에게 엄히 가르칠 때 결국은 온 백성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외면하였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엄히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뒀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자녀가 되겠지만 부모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적 자녀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신 21:22]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신 21: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할 때 극심한 죄

의 경우엔 나무에 매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에 대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함이며 주의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들어가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모압여인들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한 무리들 중 두령들을 잡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나무에 목매달도록 하셨습니다.

"[민 25: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하나님은 나무에 매단 자들을 밤새도록 놔두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묻을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신명기 22장 ==========

[신 22:1]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 22: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신 22: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잃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체 하지 말 것이며
[신 22: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체 하지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의 짐승에 대해 탐하지도 말며 형제의 짐승을 형제에게 정성을 다해 돌려주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형제'는 우리가 잘 아는 친구나 친척만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재물에 탐하지 말며 남의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이스라엘 내에 그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형제의 물건을 탐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형제의 아내나 형제의 물건을 절대로 탐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물건인양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직장에서 쓰는 작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것인양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내 것이 아니면 절대로 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며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신 22: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는 것 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의복을 갈아 입는 것이 질서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질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전 11: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당시 남자의 의복과 여자의 의복이 별차이없이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서로 바꿔 입는다고 해서 별 이상한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을 바꿔입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가증하다'는 단어는 <토에바>인데 이는 꼴불견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꼴불견 정도는 안보면 그만이다는 느낌이 있지만 혐오스러울 정도라는 것은 구역질 날 정도로까지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 22:6]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신 22: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신 22:8]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신 22:9]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신 22:10]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신 22:11]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 22:12] 입는 겉 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하찮은 미물까지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나무에 있는 새 어미와 새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명하시면서 그것을 지킬 경우엔 복을 누리고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귀한 복을 함부로 주실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취하지 않고 새끼새만 취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할 도리인데 그것을 행한 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장수까지 허락하신다니 복받는 것이 참으로 쉬워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처럼 지극히 작고 쉽게 행할 수 있는 하찮은 것에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신은 친절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에게 불친절하면 화를 냅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비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귀하면 남의 자녀도 귀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다른 자녀에게 먹이면 안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켜도 안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갖고 싶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을 때 남도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 자비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신 22:13]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신 22: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신 22:15]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신 22:16]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신 22: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신 22: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신 22: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또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주께 하듯 복종하라 했습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이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서로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보기 싫어지고 의심이 생기면서 함께 살기 싫어지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은 주로 욕정에 사로잡혀서 여인을 탐하는 남자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나면 금새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욕정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은 욕정을 채우는 것보다 서로의 신뢰와 아낌없는 헌신이 밑바탕으로 깔려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욕정만 채우려는 사람이 욕정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여인을 미워하고 버리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하 13:14]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 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삼하 13:15]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일단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미워할 때에 아내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를 의심하여 성읍장로들에게 고발할 때에 여인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첫날밤에 나타난 혈흔이 묻어있는 자리옷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죽임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다행히 첫날밤의 흔적이 있는 자리옷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죽임을 모면할 수 있었고 평생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버림받지 않았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에게도 정결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정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이지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먼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교회 모임 잘 참여하길 원하고 헌신 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잘 되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아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인간됨이 덜 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 22: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신 22:21]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여인에게서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결입니다. 여인이 정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아름다움은 없어집니다. 여인의 정결함은 비단 육신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육신으로는 정결함을 잃었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정결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요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비록 여인이 육신적으로 정결함을 잃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정결함은 마음에 있습니다. 과거의 삶은 과거로 묻어 두십시오. 배우자의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과거를 알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배우자를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용서함이 당신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 6: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신 22:22]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 22:23]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신 22: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 22: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신 22:26] 처녀에게는 아무 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음란한 죄악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이는 음란한 죄악이 하나님의 성품과 지극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 8:41]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유대인들

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오직 하나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말은 맞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지만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어도 하나님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신 22: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신 22:28]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신 22:29]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신 22:30]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통간했을 경우에 남자는 반드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으며 평생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정욕에 사로잡혀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에라도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소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위대한 것은 이 땅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짓밟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마귀의 영향 때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채 여전히 악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음을 고백하며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

[신 23:1] 신낭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 23:2]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the Assembly of Jehovah)'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신낭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남자 성기가 잘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여서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셨습니다.

또한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사생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합니다. 스가랴에서는 이 단어를 '잡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슥 9:6]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0인역과 벌게이트 역에서는 '음행의 자식'으로 변

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성관계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사생자'로 규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셨는데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엄격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악, 특별히 음행과 연관된 죄악은 매우 싫어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천국 또한 이렇듯 부정한 자가 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신 23: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 23:4]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속입니다.

"[창 19:36]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창 19: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창 19: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밀접한 혈연관계로 연결되었지만 이스라엘이 화친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시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며 모압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음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 23: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신 23:6]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은 그 어떠한 저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지 않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신 23:7]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신 23:8] 그들의 삼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리라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며 애굽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삼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혈통을 이어받

은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지만 이들 역시 40년 광야생활 때에 이스라엘을 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두 민족간에 반목과 질시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애굽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될 때까지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툼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의 미움이 다소 사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명하신 것은 애굽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찮은 짐승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갚을 길을 찾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신 23:9]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신 23:10]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신 23:11]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신 23:12]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신 23:13]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신 23:14]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 23:15]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신 23:16]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명하셨습니

다(10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까지 삼가하라고 원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밤에 몽설할 때에 그는 진 밖에 있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목욕을 하고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몽설한다'는 것은 남자의 정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셨으며 하루동안 부정하다 여기셨습니다.

"[레 15:16]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질병으로 인해 몽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음란한 꿈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몽설이 이뤄지거나 자의적으로 몽설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변을 치르고 난 후에 배설물을 눈으로 보지 말고 돌아서서 흙으로 덮으라 명하셨습니다(13절).

이렇듯 세심한 부분까지 성경에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우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심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정결과 거룩에 대해 보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정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길 원하시고 거룩하길 원하시는지 알

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점도 흠도 없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여 불합한 것을 보지 아니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4절). ".....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불합한 것'은 '발가벗다' 또는 '발가벗기다'는 뜻의 <아라>에서부터 유래한 말로서 '수치스러운 것', '추잡한 것', '더러운 것'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모든 더루운 것으로부터 거룩하시지만 특별히 음란한 것으로부터 거룩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음란한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히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모든 음란한 것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합니다. 모든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럴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신 23:17]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신 23:18]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창기와 미동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창기'나 '미동'은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파는 창녀나 남색하는 자가 아니라 성소에서 우상숭배 행위 중 하나로 종교적인 매춘행위를 하는 창녀나 미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깨끗한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 재물만 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재물을 기뻐 받으실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재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신 23:19]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신 23:20]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자를 받기 위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형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한 죄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제가 돈이 필요할 때는 그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줘야 했습니다. 이는 돈이 필요한 형제를 돕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국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을 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계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상 거래간에 형성되는 이자는 받을 수 있

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사업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신 23: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신 23:22]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신 23:23]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해야만 했씁니다.

[신 23:24]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신 23:25]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웃 간에 화

평케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릇으로 포도를 담아서는 안 되게 하셨는데 이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후히 줘야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후히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

[신 24:1]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신 24:2]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 24:3]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신 24:4]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아내를 학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존여비 사상이 매우 뿌리깊게 박힌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여인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였어도 남자가 여자를 원치 아니할 때에 그 여인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증서를 써준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혼을 당한 여인으로서는 이미 망가진 인생이 돼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을 당한 여인을 맞이하는 친정식구들 조차도 이혼을 당하여 돌아온 여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달갑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더욱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한 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본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란 단지 남편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인이 처녀가 아니거나 간음한 여인이라면 그 여인은 성읍장로에게 고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단지 남편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남편이 싫어함으로 '이혼증서'를 써서 다시 친정집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차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추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혼증서'없이 아내를 내보내지 말라 명하신 것은 이혼증서라도 있어야 아내가 다시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증서조차 받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 여인은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곧 남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엡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들은 남편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편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은 주를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함으로써 남편을 섬기되 주를 경외하며 섬기듯 해야 합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4]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피차간에 복종하며 피차간에 아끼며 피차간에 사랑할 때에 온전히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은밀해서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엡 5:31]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엡 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 24: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집에 한가

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만일 어떤 남자가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을 때 군대에 내 보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년을 허락하셨으며 1년 동안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주신 이유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혼을 매우 신성하고 복스러운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생산을 으뜸된 기업으로 여기셨습니다.

"[시 127: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결혼하였지만 자녀생산을 원치 않는 부부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않으려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적 기능을 우리 몸에 만드시고 성적 기능을 활용케 하신 것은 자녀생산이 주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녀생산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더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단지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성적 기능을 활용하는 부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질서를 파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정하신 질서에 순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가정의 파탄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왜 저들의 가정이 파괴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능력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변질시킨 이유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 때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악은 몸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도 쉽지만 음란과 연관된 죄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지라도 이미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빚어지는 결과는 다시 쓸어 담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가볍게 여기거나 맘대로 바꾸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조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신 24:6]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의 맷돌의 전부나 윗짝이라도 전집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전집'은 저당잡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맷돌을 저당잡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필수품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었습니다.

[신 24: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후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후리다'는 것은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유괴하는 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 24:8]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네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 하여 행하라
[신 24:9]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은 문둥병자에 대해 최대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대하라 명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가장 최악의 질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다른 질병과는 달리 저주받은 자에게 임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진 밖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 주셨듯이 문둥병자들도 치유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서 저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둥병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 24:10] 무릇 네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신 24:11]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집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신 24:12]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신 24:13] 해 질 때에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신 24:14]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신 24:1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채권자가 받은 담보물에 대해 최대한 예의바르게 행동하길 원하셨스비낟. 만일 담보물이 가난한 자의 겉옷일 경우엔 그 겉옷을 취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겉옷은 침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기온은 밤에 매우 춥기 때문에 몸을 덮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겉옷은 그럴 때 긴요하게 사용된 필수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난한 자가 자신의 겉옷을 저당잡혔다면 밤에는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줘서 그로 하여금 추위에 떨지 않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신 24:16]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지은 죄 값을 다른 사람에게 치르게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은 독립적이며 고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부모의 죄 값을 자식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자식의 죄 값을 부모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지은 죄 값을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연관시켜 책임을 지게 하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좋지 않게 여기시고 금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의 죄 값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못할 때나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빌린 돈을 가족에게 전가시키거나 친척

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렘 31:29] 그 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렘 31:30]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해서 자식의 이가 시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땅히 신포도를 먹는 자의 이가 시게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각 사람이 스스로의 죄에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 24: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신 24:18]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신 24: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 24: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신 24: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신 24: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려웠을 적을 기억하게 될 때 현재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려웠던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살 때에 오늘의 현실을 보다 넉넉히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뭇'이라는 단어는 베어 놓은 곡식 단을 말합니다. 곡식을 벨 때에 베어놓은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챙

기지 않았을 때 그것을 챙기러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난한 자들의 취할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 19:9]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 19:10]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5장 ==========

[신 25:1]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신 25: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신 25: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신 25:4]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재판을 공평과 정직함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성품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재판에는 불의함과 공평치 못함이 있어서 의인이 악인으로 대접받거나 악인이 의인으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판은 의인을 의인되게 하고 악인을 악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태형 집행시에 재판정의 수석 재판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매를 맞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신 28:58]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신 28:59]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신 29:9]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와 같은 구절을 외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께서 자비가 충만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는 말로 고백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여수히'라는 말은 죄의 경중에 따라 합당한 양만큼만 때리라는 의미에서 '수를 세다' 또는 '기록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태형은 사십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40대의 태형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며 심판과 연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신 25:5]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 25: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 25: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신 25: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신 25:9]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신 25: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대결혼을 통해 자손을 이어갈 것을 명령하신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형이 죽음을

당하였을 때 만일 형에게서 난 자녀가 없다면 동생이 형수에게서 후사를 얻게 해 줘야 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수혼법으로 알려진 계대결혼에 대한 최초의 경우는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와 합하여 자녀를 낳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자신의 자녀가 안 될 것으로 알고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창 38:6-10).

이러한 계대결혼 풍습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모세 때 이르러 계대결혼이 율법으로 성문화된 것입니다. 계대결혼의 목적은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가문의 대를 잇도록 돕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를 통해 홀로 남아 의지할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계대결혼은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가문대대로 이어져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수는 혈통의 전수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신 25:11]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신 25:12]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를 이어 영원히 보존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의 음낭을 잡아 해를 끼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여인에 대해 용서하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녀 낳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저들의 삶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자녀까지 있게되면 생활에 곤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자녀가 주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주는 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가정에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녀가 있

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보다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얻는 복이 훨씬 큽니다.

이렇듯 젊은이들이 자녀 낳기를 꺼려하는 현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더욱 저들을 바쁘게 만들며 더욱 가치있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장식해 놓습니다.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이 마귀의 덫에 걸려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취하고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 25:13]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신 25:14] 네 집에 같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신 25:15] 오직 십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신 25:16]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십분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십분 공정한 되를 사용하라 명하셨습니다. '저울추'는 히브리인들이 무게를 달 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하였는데 주머니에 같지 않는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봐가면서 다른 저울추를 사용한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로 무게를 측정케 하여 더 많은 양을 얻으려 하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여 정량보다 적은 양을 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당한 행위는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상업이 매우 발달하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며 상거래가 많아졌습니다. 부정당한 추를 사용하는 행위는 비단 옛적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더욱 사기치는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도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치는 행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보실 때 역겨워하십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속이 울렁거리고 토해내는 것처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에서 공정치 못한 행위를 점검하십시오. 혹시라도 사기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 놓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공정한 상거래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사기치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 25:17]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 25:18]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신 25: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비겁하게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쳐서 유약자들을 기습 공격하여 무참히 살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비겁한 행위를 한 아말렉 족속을 가증히 여기며 저들을 도말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처럼 비겁하게 유약자를 쳐서 살해한 행위는 저들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정당당한 사람은 결코 후미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한 사람은 꺼리낌이 있거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몰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몰래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뒤에서 몰래 하는 말에

피해를 입습니다. 다른 사람 뒤에서 몰래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행위는 아말렉 족속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정정당당하여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말만 해야합니다. 그 사람이 들으면 안되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이 듣더라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야 하며 유약한 자를 공격하거나 해쳐서는 안됩니다.

신명기 26장 ==========

[신 26: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신 26: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맏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 26:3]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 소산물을 취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 100: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 26:4]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 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신 26:5]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신 26:6]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신 26: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신 26: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신 26:9] 이 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의 애굽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며 지금의 일어나는 현실 문제를 바라보며 속상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비참했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새 현재의 삶에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람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야곱이 아람 지방 곧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이나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소수의 사람" 뿐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수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창 46:27]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 명이었더라."

하지만 저들이 출애굽하였을 때는 장정만 60만명이나 될 정도로 큰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출 12: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신 26:10]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맏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신 26: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 26:12] 제삼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신 26:13]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신 26:14]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신 26:15]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

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일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일조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은 저들 수입의 60% 정도 차지한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많은 예물을 바치도록 명하신 것은 온 백성이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둬진 예물을 통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어 저들로 하여금 궁핍하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들처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십일조는 제삼년마다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십일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신 14:28]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신 14: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축복을 주시리라."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데 십일조를 사용하지 말고 먹고 살기 힘든 성도를 돌봐주며 저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의 배를 더욱 허기지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 26:16]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 26:17]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신 26: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신 26:19]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른 민족보다 더

욱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 28: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뛰어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칭찬을 받고자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고 영광을 취하려 할 때에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어서 도무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만이 빛난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 하시기 바랍니다.

소 제

소제는 무엇인가?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소제 역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이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서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어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제에 사용된 기름은 감람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유황은 유황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로써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유향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으며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황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화제로 태워진 소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진 소제물은 번제와 함께 행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소제만 별도로 드릴 경우가 있었지만 그 양이 지극히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주로 번제와 함께 행해졌을 것입니다.

백성이 가져온 소제물은 한 줌 이상되는 양이었습니다. 물론 가져온 사람에 따라 그 양이 각각 달랐지만 화제로 드려질 때는 한 줌 곡식만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제물은 레위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으로만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처럼 곡식으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곡식으로 하나님께 소제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

겨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부자는 가진 것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가난한 자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드렸다고 풍성한 제사가 되지 않으며 적게 드렸다고 빈약한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소제를 드리는 방법

소제로 드려질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단에 화제로 드려질 수도 있었지만 화

덕에 구워서도 드려졌으며 변철에 부쳐서도 드려졌습니다. 또한 솥에 삶아서도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레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레 2:5] 번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레 2: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레 2:7]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번제단에 화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유황을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유황이 비싼 향료이기때문에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그러한 소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황없이도 화덕과 변철과 솥을 이용하여 소제를 드리게 했던 것은 유황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림들도 소제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덕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화로와 같은 것입니다. 변철은 넓다란 철판으로 오늘날의 후라이팬과 같은 것입니다. 솥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마솥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졌으며 반드시 누룩이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누룩이 첨가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매우 쉽게 음식 속에 스며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특성이 아주빨리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누룩없는 소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제는 바치는 사람이 직접 행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헌금만 바친다고 훌륭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야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레위인이 남은 음식을 취함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졌습니

다. 제사장은 준비하여 가져온 소제물 중 일부를 취하여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레 2: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레 2: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돌려졌습니다. 남은 소제물을 가져온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레위인들이 취하도록 한 것은 소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

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민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물의 남은 음식을 레위인에게 주셨던 것은 레위인에게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스스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들 스스로 저들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렇기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

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들게 합니다.

십일조와 헌물

십일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일조는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지 말아야 합니다. 싫어하면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헌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기 싫으면서 억지로 헌금하는 경우는 상한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헛된제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올 헌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원하며 드리는 헌물의 귀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은 축복과 연관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하여 정하신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이 없어도 전혀 사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물이 필요해서 거둬드리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내기 싫습니까?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 드립니다.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심은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생각하십시오. 그것마저 믿지 못하시겠거들랑 신경쓰지 마십시오. 심은대로 거두는 것도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일조 내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나의 경우엔 수도 없이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목격했습니다. 십일조는 힘든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윗 구절에서 "나를 시험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

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지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우리의 가진 물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어떠한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눈에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들이 십일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린 십일조와 헌물 뒤에 따라오는 축복을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기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십일조를 거두어서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십일조를 받아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거둬들인 십일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배불리 먹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는 풍성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의 거한 성읍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는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지파로부터 분배받은 48개의 성읍이 전부였습니다. 그 성읍 조차도 레위인들이 마음대로 팔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그 성읍이 없어지면 거할 처소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거둬드린 십

일조를 모두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십일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십일조를 내게 하신 것은 십일조가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물질은 저들의 소득의 1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십일조가 아니라 십오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십일조를 포함하여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되었으며 안식년에도 땅을 경작하면 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 때에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했고 모든 빚을 탕감해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헌금은 십오조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금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저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약해질 때에 어김없이 외세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고 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7장 ==========

[신 27:1]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신 27:2]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신 27:3]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간 후에 큰 돈들을 세워 그곳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율법을 적으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일종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내용을 돌에 새겨 적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정에 이러한 큰 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액자의 형식으로 세울 수 있으며 율법이 담긴 성경책을 출입문에 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대로 생활하는 자녀는 결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십니다.

"[신 28: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7: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신 27:5]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신 27:6]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신 27:7]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 27: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신 27:9]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신 27:10]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세운 돌들에 석회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눈에 띄게 잘 보이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강력하게 지켜질 때 축복도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약해지면 축복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운 돌들에 철기를 대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통이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 29: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코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막 7:6]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막 7: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신 27:11]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신 27:12]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신 27:13]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신 27:14]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 27:15]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

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신 27:16]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17]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18]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19]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20]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21]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22]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23]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24]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25]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 27:26]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에발산에 돌들을 세워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라 명하셨습니다.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리심산에 올라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신 11: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은 축복을 받을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 저주받

을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을 받을 율법과 저주를 받을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받을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 대신에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배우자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저주가 배우자에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한대로 행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지고 매우 풍성한 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에발산은 황량하며 벌거벗은 산이 되었습니다. 두 산 모두 세겜 성읍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지만 무엇을 선포했느냐에따라 그 산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

[신 28: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8: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신 28:3]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 28:4]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신 28:5]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신 28: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 28:7]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신 28:8]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 28:9]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신 28:10]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 28:11]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신 28:12]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 28:13]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신 28:14]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적혀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며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복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업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세상의 복을 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쉬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방법이 너무나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대로 지켜 행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한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 28: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

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신 28:16]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신 28:17]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신 28:18]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신 28:19]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 28:20]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신 28:21]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신 28:22]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신 28:23]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신 28:24]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도 되시며 저주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

나님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저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혹자는 "왜, 하나님께서 저주의 하나님이 되십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주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징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아버지께서 자녀를 징계치 아니하시겠습니까?

"[히 12: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 12:9]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다소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이 있게금 행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으

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행실에 따라 정확하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은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저주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 밖에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의 자녀가 저주를 받고 당신의 소산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며당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하는 질병은 애굽에 내린 재앙과도 같은 것이어서 당신의 삶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치 않는다면 당신에게 임하는 재앙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이 하늘의 비와 같아서 당신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 28:25]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신 28:26]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신 28:27]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 28:28]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멂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신 28:29] 소경이 어두운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신 28:30]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신 28:31]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신 28:32]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신 28:33]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신 28:34]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아래 놓여져 있으면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납득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저주를 견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당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여기며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발생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저주가 임할 일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자가 없으

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저주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기로 작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있는 문제도 사라져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신 28:35]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발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신 28:36]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신 28:37]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 28:38]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신 28:39]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신 28:40]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신 28:41]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있지 못할 것이며
[신 28:42]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신 28:43]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신 28:44] 그는 네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신 28:45]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

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신 28:46]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계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당하는 재앙은 끝이 없을 정도로 매우 극심합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면 어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심었지만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취하지 못할 때 그것이 만족한 삶을 제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그러한 재앙이 임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나의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한탄합니다. 남편은 아내때문이라 손가락질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원인을 돌려댑니다.

하지만 모든 재앙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입니다.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설교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조차 듣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제는 교회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말씀이 도처에 널려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심령 속으로 심겨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형편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는 예전의 목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많습니다.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씀이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서 가장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려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덫에 걸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들의 머리로만 이해되겠지만 저들의 심령이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아름다움이 저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사람이 깨끗할 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깨끗함은 악한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할 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악한 것이 없을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심령만이 깨끗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레 모든 재

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 28:47]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신 28:48]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신 28:49]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음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신 28:50]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신 28:51]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신 28:52]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신 28:53]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

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있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이렇게 배불러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임하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극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굶주림과 헐벗음과 핍절함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핍절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대적자를 붙이셔서 우리를 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자의 압제아래 놓이게 되며 압제자로 인한 고

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리 만족스러운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때 그 기쁨은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힘들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하지만 인생이 힘들 때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입에 힘을 주어 미소를 띄게 하고 의지적으로 크게 웃을 때 기쁨이 임합니다. 희락의 기름부음은 웃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희락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신 28:54]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신 28:55]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 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신 28:56]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신 28:57]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하나님의 저주는 끝이 없습니다. 죽음이 그 끝이 되어야 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저주는 자녀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죽여 자녀의 고기를 내가 취한다는 것은 절망 중의 절망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듯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이상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한 고통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당한 고통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하는 고통에 불평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당하는 고통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그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희락의 기름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러한 희락의 기름을 타고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모든 고난과 역경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 28:58]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신 28:59]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신 28:60]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붓게 하실 것이며
[신 28:61] 또 이 율법 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

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신 28:62]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되지 못할 것이라
[신 28:63]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신 28:64]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너와 네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재앙이 임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먼저 임할 것이며 자손들까지 극렬하게 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모세의 전한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기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고 극렬한 재앙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때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사람이 멸망당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신 28:61).

[신 28:65]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신 28:66]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신 28:67]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 28:68]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때 우리 육신에 여러 종지

않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발바닥을 편히 쉴 곳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인해 마음으로 떨며 눈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이 산란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영혼육 전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떨고 있거나 눈이 쇠약해지거나 정신이 산란한 상태라면 이미 하나님의 재앙은 당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

[신 29:1]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신 29: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신 29:3]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신 29: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는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거주했던 모압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우고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 지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으며 자신

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기적과 기사는 표면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눈과 듣는 귀는 없다고 말하였던 것은 표면적인 신앙과 내면의 깊은 신앙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할 정도의 매우 뛰어난 민족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저들 손으로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듯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이유는 저들 마음에 깨닫는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깨닫는 마음과 눈과 듣는 귀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고전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10] 오직 하

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표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표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는 것은 모두 깨닫는 마음과 눈과 듣는 귀가 없는 행위입니다. 오직 성령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아직도 이러한 깨닫는 마음과 눈과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표적과 지혜를 보여주기에 애를 씁니다. 저들은 표적과 지혜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표적과 지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일대일의 깊은 만남이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표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혜가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고 헬라인과 같은 교만한 지혜자를 낳을 뿐입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모세가 말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신 29:5]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 29:6]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29:7]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

가 그들을 치고
[신 29:8]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신 29:9]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 저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직 저들을 위해 그렇게 큰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이 될 수 있도록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못 먹게 하셨습니다. 이는 농경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는 모두 식물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께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만나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떡입니다. 세상의 떡은 포도주와 독주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떡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세상의 떡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떡이 육신은 배부르게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리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떡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취하는 자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 29:10]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신 29:11]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신 29:12]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예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예하여

[신 29:13]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신 29:14]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 29:15]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진중에 있는 객'이나 '나무를 패는 자'는 주로 이방인 중에서 노예로 삼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이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자들에게까지 포함시켜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에 국한된 신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신이 아니십니다. 뛰어난 사람들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남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시지만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의 발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신 29:16]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신 29:17]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신 29:18]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신 29:19]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퍅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신 29:20]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신 29:21]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

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위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제대로 알 때 그 누구도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생겨나는 것은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18절). 독초와 쑥의 뿌리는 악한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쓴 물이 쓰고 단 물이 단 것처럼 악한 자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상을 섬김으로써 악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복을 빕니다. 우상을 섬기다보니 스스로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19절)고 떠들고 다닙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러잖아도 용서하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높아진 교만함을 철저히 부서뜨리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록된 저주를 모두 저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신 29:22]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신 29:23]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훼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신 29:24]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신 29:25] 그 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신 29:26]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당한 재앙과 질병을 보고 후손과 이방인이 "왜 그렇게 되었나요?"라고 물을 때 "...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25-26절)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재앙과 질병이 임할 때에 다른 사람과 후손들이 "왜 그런 재앙과 질병을 당하였나요?"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재앙과 질병을 당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신의 후손에게 이러한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은 아라바 평지에 있던 가나안인의 다섯 성읍 중의 하나로써 이곳 거민들의 극악한 죄악으로 인해 고모라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창 18장 ~ 19장 참조).
'고모라'는 소돔 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성읍으로 사해 남부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드마'는 '붉은 흙'이란 뜻으로 소돔 근처에 있던 성읍 중의 하나입니다(창 10:19).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함께 아드마 성읍도 같이 멸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알 성읍과 더불어 사해 싯딤 계곡에 자리하고 있었던 다섯 성읍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함께 멸당 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29:27]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신 29:28]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

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신 29:29]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격분과 함께 크게 통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 다른 땅에 내던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재앙은 기원후 70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무려 2천년 동안 나라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명령과 귤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처럼 우리의 당한 고통도 클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

[신 30:1]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신 30:2]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 30: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 30:4]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저주의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2천년 동안의 긴 세월동안 다른 민족들 틈바구니에 얹혀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원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신 30: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신 30: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신 30:8]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의 근원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신의 먹을 것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도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들이 찾는 생명의 근원은 모두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잘못된 생명의 근원을 제공합니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정답처럼 여겨집니다. 매우 옳은 선택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두 그릇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복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변치 않을 복입니다. 마땅히 당신이 지혜자라면 영원히 썩어 문드러질 세상의 복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영원히 썩지 않을 복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신 30:9]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30:10] [9절]과 동일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저들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

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덮혀있는 우리 마음의 꺼풀을 제거하심으로 비로소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주여, 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두 가지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는 지은 죄에 대한 '회개' 단계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고통스러운 회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사모함'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회개함이 이뤄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단계를 맞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신 30:11]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 30: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신 30: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신 30: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느

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14절)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고 그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먼 것이 아닙니다.

성령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무리 힘들어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든 짐을 모두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라면 힘들 것이지만 성령하나님과 함께 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눌려지는 무거운 짐을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구는 효과가 없는 것이 영원토록 어깨에 눌려지는 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짐을 가벼이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들어주시면 비록 그것이 짐이라 할지라

도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멍에를 짊어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면서 멍에를 지라는 것일까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직접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다만 주님 옆에서 동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것입니다.

이는 어린 송아지의 멍에가 가벼운 것과 같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부모된 소들 사이에 놓여져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갑니다. 이렇게 어린 송아지를 부모된 소와 함께 하게 만들고 멍에 지는 것을 배우게 합

니다. 어미 소가 멍에를 지고 가기때문에 어린 송아지는 어미 소 사이에 끼어 그냥 동행만 하면 됩니다. 어린 송아지는 조금도 멍에가 무겁거나 힘들거 버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미 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마냥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멍에를 지라 요구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장 가볍게 하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삶의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멍에를 지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찾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삶을 희생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 기쁨이 샘 솟게 될 것입니다.

[신 30:1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신 30:16]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 30: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신 30:18]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신 30:19]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기만 하면 생명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을 조건에 합당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내가 사망을 받기에 알맞는 행동을 취할 때에 사망이 임합니다. 이처럼 저주 또한 저주 받을만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의대로 생명과 사망을 정하시고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것에 명확하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조금의 오차와 헛점도 없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워놓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번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워놓은 법과 질서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신다면 억울해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행하지 않았어도 벌을 받을 수 있고 잘못이 없어도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금의 오차나 헛점도 없이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약한 자에게 힘이 되고 미련한 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바로 '오늘'에 일어납니다.

"[신 30:1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오늘'이라는 단어를 다시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 당신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망 또한 오늘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늘 임할 것입니다. 그 복은 당신 것이며 오늘 그 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 또한 오늘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 일어날 저주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복은 오늘 받기를 원하지만 사망과 저주는 영원히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망과 저주 또한 오늘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생명과 복을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 생명과 복이 임하고 어떠헥 하면 하나님의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지 안다면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며 저주가 임하지 않는 평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신 3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결코 죽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한번도 사망을 겪어본 일이 없으시며 저주를 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생명과 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생명과 복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나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놓으신 법칙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할에 넘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

지 않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마귀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영토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통치가 끝나고 영국군의 철수와 함께 유대국가 건국위원회 의장인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아랍 연맹에 가입한 아랍 제국의 정규군이 팔레스타인으로 침입하여 제1차 중동전쟁(독립전쟁)이 발발되었다.이 때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지 2일 뒤인 5월 16일이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위시한 아랍 연합국에 의

해 동 남북 3면에서 공격을 받았다.그러나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1949년 2월 유엔의 조정으로 휴전된 후 이스라엘은 1947년 분할 계획으로 할당 받은 영토보다 23% 이상의 영토를 더 차지했다.

1956년 7월, 이집트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단행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에 반격을 가하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였고(2차 중동전쟁) 전세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제 여론에 밀려 사태는 진정되고 이스라엘은 1957년 3월 점령지에서 철수하였다.

2차 중동전쟁 후 아랍의 게릴라 활동에 이스라엘 은 1967년 4월 대규모의 공격을 아랍측에 감행하였다. (3차 중동전쟁;6일 전쟁) 전투는 시리아, 요르단으로 확대되어 전면전으로 확산되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4일만에 시리아국경의 골란 고원을 공략하였다. 그러나 동년 6월 6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쌍방이 수락하여 6월 9일 정전이 실현되었다.

6일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를 한 나세르는 전력의 재건을 서두르는 가운데 갑작한 죽음을 맞이했고 이어 사다트가 이집트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사다트는 1973년 10월 6일 이스

라엘에 기습선제 공격을 가했고 서전을 유리하게 이끌었으나 북부에서는 시리아 군이 패퇴하여 전선이 고착화 되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정전 결의안을 채택하고 당사국의 수락을 얻어 정전되었다 이 전쟁으로 전세계가석유위기를 겪었다. 이집트의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은 상호 방문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1979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1982년 4월 25일 이스라엘은 67년부터 점령해온 시나이 반도에서 지중해 연안의 라파(라피아)에서 아카바만의 엘라트(에일랏)까지 이르는 직선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남쪽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웨스트뱅크(West Bank): 요단강 서안지구

요르단 강 서안 지구(West Bank 웨스트뱅크는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행정 구역이다. 가자 지구와 함께 잠재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영토로 상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요르단 강 서쪽에 있는 둑'이라는 의미로 서안 지구(West Bank)로 불리며 제3차 중동전쟁(1967년)을 계기로 이스

라엘의 점령지가 됐다. 남·북·서쪽으로는 이스라엘 영토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접한다.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면적은 5,640㎢이며, 2012년 6월 현재 인구

는 260만 명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80% 이상인 약 210만 명은 팔레스타인이며, 약 50만 명은 유대인이다.
서안 지구는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군사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서안 지구 내부에는 동예루살렘·베들레헴·예리코 주 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정착촌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으며, 약 5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 정착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스라엘군이 곳곳에 상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8m 높이의 분리 장벽 설치를 강행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무력 점령 중인 서안 지구 일대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이스라엘의 주권이 이스라엘 정착촌의 유대인 외에 서안 지구 주민을 보호해주는 일도 없다.

할 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할례'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창 17:10)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드시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지 8일만에 성전에 가셔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눅 2:21-2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명령하

시면서 "[창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양피'를 베라는 것입니다. '양피'는 남성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말합니다. 양피를 자르게 되면 피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었을 지라도 할례의식을 행한 남성은 며칠동안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병균이 몸 속으로 들어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피의 제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피가 베어지면서 흐르는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베어진 양피는 세상적인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뜻합니다. 바울은 "대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8-29)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할례의 영적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있서 단순히 '육적인 할례'에 대해 강력하게 꾸짖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행 15장

참조). 그래서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11)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의식이 마치 세례의식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2)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수 5장)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고 정탐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의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의식을 행하게 한 것은 저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

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저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떠오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누워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긴박한 때에 할례의식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할례의식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창 17:14)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

[신 31:1]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신 31:2]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일백 이십 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신 31:3]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1:4]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신 31:5]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남쪽 지경에 있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단강 동쪽으로 진군하여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만일 가데스바네아에서 직접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더라면 요단 동편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민족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반격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요단 동쪽의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할지라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따졌습니다. 제발 가나안 땅에 함께 입성케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신 3: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신 3: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

게 말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런 간구를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해가 뜰 때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인간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의 위치는 너무나 크고 높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세없이 이스라엘은 한 발자국도 앞서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우

리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홀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신 31:6]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신 31: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신 31:8]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지만 그의 신분이 낮은 자가 아니었

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매우 똑똑했으며 매우 강인한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신앙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모세가 장막에서 기도를 마치고 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결코 장막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장막을 지키며 장막과 함께 살았습니다.

"[출 33: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는 성막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막을 대신하는 회막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줄곧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신앙심이 좋았고 성실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앞서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칼 날은 사정없이 아말렉 족속을 죽였습니

다.

"[출 17: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런 여호수아였지만 막상 모세가 떠나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상황이 되고나니 그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하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여호수아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떨림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강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때는 항상 부족하며 연약한 모습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신 31:9]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신 31:10]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칠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신 31: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신 31:12]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신 31: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두 기록하여 그것을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해주신 율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율법은 모두 613개로써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며 시민법은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이고 의식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필요한 율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행해서는 안 될 율법 365개와 나머지 해야 할 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회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 31: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신 31:1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셨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

게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저가 회막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임하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성막의 중요성을 깨닫거나 지성소의 강력한 체험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해 하나님의 영광체험이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모세처럼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 31: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

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신 31:17]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신 31:18]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재앙과 환난이 닥칩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환난이 닥칠 것을 아시고서 미리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누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재앙과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에 재앙과 환난이 닥치고 있다면 혹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일 질병과 고난이 너무 극심하게 일어난다면 혹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 31: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 31:20]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신 31:21]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신 31:22]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대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한 내용을 주제로 만든 모세의 노래를 말합니다. 이 노래는 신명기 32장 1-43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겠으나 저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한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한 까닭임을 일깨워주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족과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축복하시며 언제 저주하시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타락할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

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31:23]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 31: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함을 느끼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며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모세가 행했던 능력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모세의 멋진 모습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멋있는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고라 일당을 지진으로 멸망시켰던 사건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여호수아는 자꾸만 낮아지고 부족한 모습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낮아지고 부족함만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내가 가진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대제사장으로서 아론보다 우위에 있었고 모세가 직접 모든 백성을 지휘하고 인도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백성을 인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사장들을 활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웠으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제사장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다른 방법으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세의 방식을 따르기 보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앞장 섰지만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교회의 담임목사가 모든 일에 앞장서는 것은 모세와 같은 방식이지만 사역자를 앞세우고 담당자를 앞세우는 것은 여호수아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모세의 방식을 따른다면 언젠가 당신은 모세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여호수아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면 당신이 죽은 후에도 영구적으로 교회가 존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모세처럼 행할 때에는 아빠가 없어지고 날 때 혼란이 생기고 질서없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길로 행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남편없이 남겨진 아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음을 발견하고 매일 슬픔의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여호수아처럼 행할 때에 아빠가 죽은 후에도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빠가 살아 있을 때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해

알고 있으며 직접 행했기 때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아내도 마음에 슬픔은 있을지라도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신 31:25]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신 31: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 31:27]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신 31:28]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신 31:29]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신 31:30]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책을 언

약궤 곁에 두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에게 들려 주셨던 모든 율법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돌판과 함께 두었을 수 있으며 따로 언약궤 옆에 상자를 두어 그곳에 보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낙헌식을 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언약궤에는 두 돌판 밖에는 없었습니다.

"[왕상 8:9]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지만 천국의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두 돌판, 싹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이 들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 9: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히 9:4]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하지만 천국의 언약궤에도 율법책은 없습니다. 이

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책이 두 돌판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돌판도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역시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물론 율법책은 두 돌판보다 더욱 세세한 율법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 돌판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종합이기 때문에 천국의 언약궤에서도 율법책이 없음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

[신 32: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 32:2]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신 32:3]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신 32:4]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며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하시며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높여야 합니다.

[신 32:5]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신 32:6]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신 32: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신 32:8]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 32:9]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며 지혜가 없는 사람이며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네 부모에게 나의 행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줄 부모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르쳐줄 부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 32: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신 32:11]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신 32: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3]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신 32:14]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어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무지에 있고 광야에 있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황무지와 광야가 뜻하는 의미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의 눈동자는 잠을 잘 때 쉼을 얻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시 121: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시 121: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 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 121: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당신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으며 더욱 깊은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 32:15]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찌매 발로 찼도

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신 32:16]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신 32:17]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여수룬'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기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저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조금만 배부르고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잠 30: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 30: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신 32:18]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신 32:19]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케 한 연고로다
[신 32:20]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신 까닭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자신을 낳은 부모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된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실 때 그를 향해 격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달라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를 알지 못하며 찾지도 않고 외면하는 불량자와 같은 자녀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2천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유리하는 고생을 당했듯이 우리의 거할 거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의 고마움을 보답하지 못할 때 재앙이 닥치는 법입니다. 마땅히 자녀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섬겨야 하지만 영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신 32:21]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신 32:22]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신 32:23]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신 32:24] 그들이 주리므로 파리하며 불 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신 32:25] 밖으로는 칼에, 방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신 32:26]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신 32:27]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질투가 있으십니다. 사람이 질투가 있듯이 하나님도 질투가 있으십니다. 사람의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질투도 사람의 질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숭배할 때 질투를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점치는 점쟁이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한 질투심이 심해질 때 이내 분노하십니다. 분노는 격분케 만들고 급기야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것이 재물일 때 재물을 뺏어 가시며 그것이 자녀일 때 자녀를 뺏어 가십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우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하나님만이 절대 우위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 막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물도 좋아합니다. 자녀도 좋아합니다. 학업도 소중한 것이고 세상의 명예도 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좋아할 것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아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되시니 나는 종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가정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 또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히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우리의 행위에 분노하셨을 때 우리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 중에서 가장 극심한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신 32:28]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신 32:29]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신 32: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 주지 아니하셨더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고 분별이 없는 민족이며 지혜가 없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략'은 히브리어 <에차>인데 이것은 '충고', '조언', '의논', '결의'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른들의 충고나 조언을 듣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는 고집스러운 민족입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고 함께 하며 나라를 이끌어 갔었던 어른들이 르호보암에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들의 조언을 듣고서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모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상 12:13] 왕이 포학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상 12:14]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

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분별력'이 없었는데 '분별력'은 히브리어로 <테분>인데 이는 단순한 분별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이해력'이나 '지식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표적만 바라봤으며 표적이 있을 때에는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표적이 없으면 이내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신 32:31]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신 32: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신 32: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신 32:34]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신 32:35]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신 32:3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힌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신 32:37]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신 32:38]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신 32: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신 32:40]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신 32:41]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신 32:42]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신 32:43]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들의 반석'은 이방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멋져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은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신을 섬깁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신이 더 멋져보이고 더 가까워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신이 마치 포도나무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저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무너졌듯이 그렇게 무너질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맛있어 보일지라도 먹으면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 가득찬 열매일 뿐입니다.

[신 32:44]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신 32:45]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게 말하기를 마치고
[신 32:46]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 32:47]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짓게 하신 노래는 온 백성에게 전해졌으며 자손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짓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백성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44절).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신 32:48]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신 32:49]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신 32:50]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신 32:51]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신 32:52]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셨습니다. 모세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죽을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였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신 34: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죽을 상태가 아닌 모세를 죽이셨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죽임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아갔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으로 몰고 가셨으며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도 아니며 레위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단 하루도 장막을 떠나지 않았을만큼 성실했을지라도 그는 단 한 번도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출 33: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날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듯이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지성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자 하셨다면 아론의 자손 중에 누군가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더니 이제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론 나라의 존속과 연관된 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호수아의 결정이 매우 중요했지만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와 같은 독재자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지성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열리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롭고도 산 길이 열린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신명기 33장 ==========

[신 33:1]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신 33:2]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취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신 33:3]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 33:4]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신 33:5]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축복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말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대로 이뤄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대로 이뤄

지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창 49장). 야곱의 축복의 말대로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에게 축복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그대로 이뤄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얼마나 확실하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라 명하셨습니다.

"[신 11: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말을 선포한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지고 매우 풍성한 산으로 변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한 에발산은 황량하며 벌거벗은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성읍을 중심으로 바짝 붙어있는 산이지만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로 인해 두 산의 운명이 명확하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축복의 말은 그대로 복을 받게 하지만 저주의 말은 그대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권세도 주셨지만 저주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이 임하지만 저주할 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신 33:6]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신 33:7]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 좋지 않는 예언을 했습니다.

"[창 49: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창 49: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지만 모세는 르우벤을 향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6절)고 축복의 선포를 하였씁니다. 모세가 이렇게 르우벤을 축복한 까닭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 제 일선에 있었기 때문이며 항상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할 운명이었기에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속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르우벤 지파는 장차 있게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선봉에 서야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에 대한 좋은 축복을 해줬던 것입니다.

유다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기도형식으로 선포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에 대한 재확인과도 같은

것이었씁니다. 결국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다윗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유다지파 후손인 요셉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 33:8]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 물 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신 33:9]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신 33:10]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신 33:11]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레위지파에 대해 큰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레위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저들의 재산이 풍족해질

것이며 저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림(Urim)과 둠밈(Thummim)' 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출 28: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출 28:30]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경건한 자'는 거룩한 자를 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뜻합니다.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온전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빛처럼 임하고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

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지식이 매우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 물 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8절)는 말은 모두 물을 내는 사건과 연관된 것입니다. 맛사의 반석에서 믿음으로 물을 내었지만 므리바 반석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9절)는 말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 레위지파로 백성을 살육했던 일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숭배로 죄를 지은 형제자매를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지파의 순종으로 인해 원래 재산의 풍족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셔서 직접 양식이 되십니다. 비록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중 나뉘고 흩어지리라"(창 49:7)는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형제지파들로부터 얻은 40여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위지파의 재산이 풍족해질수록 백성의 재산 또한 풍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의 재산이 풍족하다는 것은 곧 백성들의 재산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드리는 십일조가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재산을 풍족케 하시겠다는 말씀은 곧 백성들의 재산을 풍족케 하시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 33:12]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신 33:13]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신 33:14]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신 33:15]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신 33:16]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신 33:17]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라헬의 두 아들인 베냐민과 요셉 지파를 향한 모세의 간절한 유언적 축복입니다. 12절에서 베냐민을 향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선포할 때 쓰인 히브리어는 '사랑받는 자'<예디드>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각별하고 친밀한 언약적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라는 구절에서 '어깨'<카테프>는 문자적으로 양쪽 어깨나 산등성이의 경사지를 가리키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어깨에 올려 무등 태우듯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산 언덕이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걸쳐 있어, 하나님의 처소가 베냐민의 품에 안기는 영적 특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은 '보물'<메게드>이라는 단어가 여섯 차례나 반복되며 하늘과 땅, 산과 들의 모든 결실이 쏟아지는 극상의 번영을 노래합니다. 특히 16절의 '구별한 자'<나지르>는 성별된 자, 구별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17절에서 그를 '들소'<르엠>의 강력한 뿔에 비유하며 대적을 물리치고 번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영적 안식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생명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베냐민이 누리는 복은 세상의 세력이나 지파의 규모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품, 즉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안기는 완전한 은혜에 기초합니다. 이는 장차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안식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의 머리에 임하는 복의 근원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선언된 점은 매우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타지 않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사 언약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을 시작하셨던 여호와께서, 애굽에 팔려가 온갖 고난을 통과하며 형제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던 요셉의 머리에 복을 붓고 계십니다. 이는 온갖 고난과 수치를 지나 마침내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예표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날이 맞도록 주 곁에 안전히 거하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참된 번영과 열매는 인간의 수고나 땅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셨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주권적 공급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

갈 때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삶의 짐을 지려 하기보다, 나를 어깨 사이에 업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로 채움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 33:18]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잇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신 33:19]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 33:20]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신 33:21]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모세가 스블론과 잇사갈 지파를 함께 축복하고 있는 까닭은 아마도 저들이 한 어머니에게 나온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또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서로 인접한 지역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 19:10]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수 19:11]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욕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수 19:12]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수 19:13]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수 19:14]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수 19:15]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수 19:16]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수 19:17] 넷째로 잇사갈 곧 잇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수 19:18]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수 19:19]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수 19:20]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수 19:21] 레멧과 엔 간님과 엔핫다와 벧 바세스이며 [수 19:22]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벧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수 19:23] 잇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모세는 갓지파를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20절)고 예언하였는데 갓지파는 광활한 영토를 획득하였습니다. 갓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장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신 33:22]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 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신 33:23]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신 33:24]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신 33:25]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야곱은 '단'에 대해 예언할 때 그의 교활함 때문에 뱀에 비유했었습니다. "[창 49:17] 단은 길섶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지만 모세는 "사자의 새끼"로 비유하였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단지파는 전쟁에서 뛰어난 용맹을 떨쳤습니다.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입니다.

빌하의 아들 '납달리'는 풍요로운 땅을 배분받았습

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납달리지파는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야곱은 아셀에 대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창 49:20)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셀지파는 비옥한 옥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신 33:26]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신 33: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신 33:28]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신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시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우리는 복있는 사람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장자의 흐름

* 끊어진 장자상속권

야곱의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첫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장자는 오래 가지 못하고 끊어지고 맙니다. 그가 죽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성적 타락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는 르우벤의 성적타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 35: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빌하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 49: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창 49: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결국 르우벤은 육신의 장자 상속권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르우벤이 가졌던 장자 상속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 메시야를 낳는 장자

르우벤의 성적타락으로 인해 장자상속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네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창 29:35)고 고백합니다. 첫번째 아들 르우벤부터 세번째 아들 레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적인 정욕과 질투와 싸움의 연속이었다면 네번째 아들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네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의 레아는 더 이상의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축복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를 낳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한 그의 축복에 "[창 49: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찌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창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

로다"라며 유다가 왕권을 부여받을 자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혈통을 통해 다윗왕이 태어났으며 다윗왕의 혈통은 예수님께로 이어졌습니다. 유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 영적인 장자

역대상 5장에는 이러한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대상 5: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대상 5: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찌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의 저자는 육신의 장자인 르우벤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장자상속권을 박탈당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

고 주건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찌라도"라고 말하면서 유다를 통한 다윗왕의 왕권상속권이 유다에게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고 말하면서 장자 상속권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자손이 실질적인 장자상속을 얻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집어 넣습니다. 요셉의 한 이름이 빠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12지파에는 레위지파가 빠졌습니다. 레위지파는 영적인 지파였으므로 저들은 오직 성막예법을 준수하며 살도록 구별되었습니다.

> "[수 14:4]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

이것이 모세때의 구성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설

명하자면, 요셉의 이름이 빠진 지파는 11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이름이 합쳐지니 13지파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레위지파가 구별된 지파로 떨어져 나오니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 13지파가 지금은 오직 한 지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몬지파가 유다지파와 함께 있었으나 시몬지파가 유다지파에 합류되어서 결국은 유다지파만 남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천국에서 이뤄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144000명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 "[계 7:4]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이스라엘의 영적 부활인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강력하게 역설

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 "[롬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스가랴 선지자도 말일에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 "[슥 10:6]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역대상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에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천국의 12지파가 언급됩니다.

> "[계 7:5]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

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단 지파'가 그곳에서 제외되었고 그곳에 '레위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요셉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지파는 므낫세지파와 더불어 두 개의 지파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에브라임지파였지만 천국에서는 그 에브라임지파가 요셉지파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요셉지파가 참가되었을지라도 므낫세지파는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에 비해 요셉지파가 두 지파나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요셉지파가 천국지파에서 얼마나 우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천국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국 체제는 이스라엘 지파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천국을 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그 천국 위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세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 "[계 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

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런데 그 진주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또한 12개의 진주문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 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 천국은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펼쳐진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

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천국은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거룩한 성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세상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12지파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영적인 해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스라엘 자손인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들의 이름이 거룩한 성에 기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

[신 34: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신 34: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신 34:3]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신 34: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개역성경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1절)라고 기록하였지만 비스가 산은 느보 산과 함께 아바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봉들입니다.

"[신 32:49]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는 느보 산을 비스가 산 꼭대기로 언급하고 있어서 정 반대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역성경이 영어 King James Vision 을 번역한 것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KJV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 34:1] And Moses went up from the plains of Moab unto the mountain of Nebo, to the top of Pisgah, that is over against Jericho....." 이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때에 "모세가 느보 산 곧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랐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단'은 갈릴리 호수의 위쪽의 헬몬산 근처의 땅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로부터 '단'까지의 거리는 대략 160km 정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사람은 고작해야 5km 이내 정도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를 영으로 인도하여 영안을 열게 하심으로 환상가운데 가나안 땅의 전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환상가운데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지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매우 명확하게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마치 실제처럼 명확하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여 년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생활을 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매우 명확하게 봤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34:5]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신 34:6] 벧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신 34:7] 모세의 죽을 때 나이 일백이십 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 34: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영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그의 육신 또한 강건해졌던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그의 성경에 영이 강건해짐으로써 육신 또한 강건해질 수 있음을 기록하였

습니다.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날 영이 강건한 사람은 육신 또한 강건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얻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은 저들의 부모의 DNA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영적 DNA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활성화될 때 우리의 육신 또한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의 영역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영은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느끼듯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의 영역에 대해 전혀 학습한 바가 없으며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영의 영역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온 셈입니다.

영의 영역이 학습되어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의 영역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기도를 가리켜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없듯이 방언 또한 모든 사람이 하고 있

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듯이 방언 또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듯이 방언 또한 일부 사람들만 행하고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행하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의 영역을 발견하게 되며 영의 영역을 계발하게 되고 급기야 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고 양말을 신을 수 있는 것처럼 영의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떠질 때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코가 세상의 냄새를 맡듯이 우리의 영적인 코가 영적인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의 혀가 세상의 미각을 느낄 수 있듯이 영적인 혀는 영적인 말의 권세를 갖습니다. 우리의 몸이 감촉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 몸은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왠지 소름이 끼치거나 이상한 느낌을 갖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그의 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모세의 영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그의 육신이 강건해졌고 그는 120세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으며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백성이 기도를 통해 영이 활성화될 때 모세처럼 강건한 육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강건했듯이 바로 당신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신 34: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 34: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 34: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신 34: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모세가 안수하였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안수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시키셨습니다. 안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임명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할 때 안수를 하였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또한 문둥병자에게도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 안수는 매우 중요한 영적전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안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안수를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로 여겼습니다.

"[히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 6:2]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 '신앙', '세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중요시 여겼던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안 수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세례가 임한 것은 바울의 안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1~6)

안수는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안수함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때에도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민 27:18) 그 뿐 아니라 속죄물로 바쳐졌던 짐승들에게도 안수를 했습니다.(출 29:10)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안수를 했습니다.(행 13:3) 초대교회는 일곱명의 집사를 선별하고 저들에게 안수함으로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행 6:5~6)

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장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안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과 야곱의 자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녀를 축복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저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령충만한 성도는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라고 명했던 것은 예

수님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행 9:10~12)

아나니아는 평범한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도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저에게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직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성도가 마음껏 안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언을 전하게 하십시오. 방언하도록 내 버려 두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교회 내에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중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내에 흘러 넘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안수는 직분에 관계없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안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도 안수할 수 있고 권사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수는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서도 안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해선 안됩니다. 안수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안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은 안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수는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피안수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바라거나 어떤 유익을 바라면서 행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

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찌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행 8:14~23)

시몬은 사마리아에 사는 마술사였습니다. 그에게도 놀라운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로부터 큰 자라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귀신을 쫓아 내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를 고쳐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시몬도

빌립의 기적을 보며 놀랐습니다.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좇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을 보고선 더 놀랐습니다. 마술사인 시몬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단순한 마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기를 원했으므로 사도들에게 돈을 줘 그 권능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정욕대로 안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안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전 5:22)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늘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해서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안수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고 저들에게 직분을 줄 때만 안수를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세례 의식을 행할 때 안수를 합니다. 하지만 안수함으

로 병자를 고치고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안수함으로 축복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안수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안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찌니라"(히 6:1~2)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 중 '안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헌금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헌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임'에 대한 단어도 빠져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헌금'이나 '모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은 모두 다 복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헌금이나 모임이 복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헌금이나 모임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안수가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안수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더 많은 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안수는 전이(impartation)의식입니다. 이미 앞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저들에게 큰 능력이 임하였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우리는 안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전 1:6)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전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딤후 1:6 NIV).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는 바울의 안수함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수가 은사를 전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단순히 목회를 위한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것이든 바울의 안수에 의해 그것이 다시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수는 능력을 전이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하지만 전이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안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체험자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가장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법칙이 적용될 때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하지만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에게서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악의 대물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한다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영광을 전이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더 이상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다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피를 나눈 관계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외에는 당신과 더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는 이미 당신의 목회자 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를 당신도 버리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울왕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곤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도록 내 버려 두셨습니다.

>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삼상 16:14)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신명기

초판발행 2026. 3. 1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초강추! CHANCE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감격한 능력으로 감격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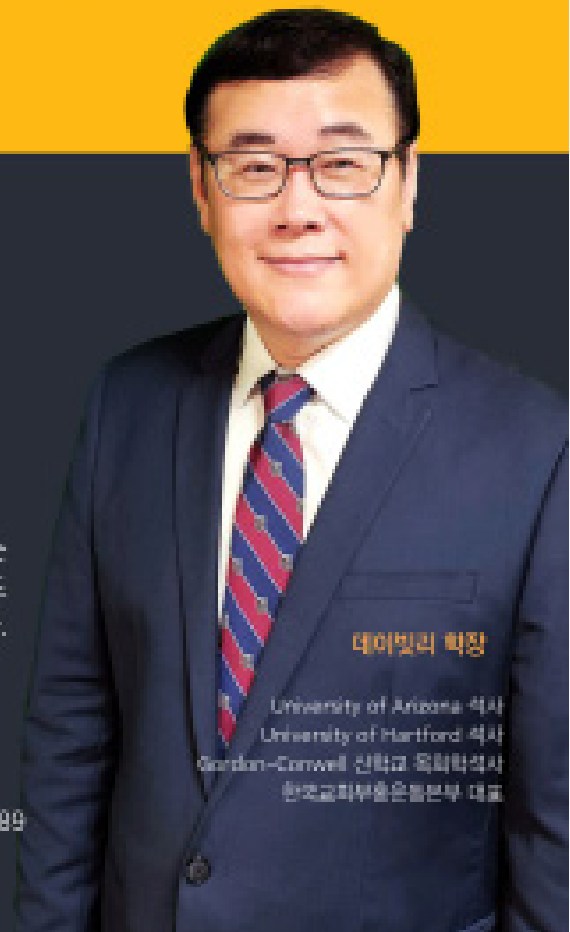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